

2026 추계 정기 학술 답사

- 서울특별시 일대 -

인솔 교수: 최 아 수

인솔 조교: 고 다 해

조	조장	조원
1조	김도경	강지우, 김예린, 유지호
2조	조현진	박광민, 박서현, 최정현
3조	손유익	김가을, 조세은, 방민준
4조	김정훈	길현호, 장재원, 최지효
5조	정해용	김희준, 이종환, 이준호
6조	한영현	장보경, 전승빈, 황찬우
7조	이충일	김민성, 박진혁, 안효일

2026. 9. 30. ~ 10. 02.

가톨릭관동대학교 地 理 教 育 科

<목차>

답사 개요	1
답사 일정	2
답사 경로	3
서울특별시	4
한강유역과 한강공원	15
서울숲	23
성수동	30
양재천	37
국립중앙박물관	41
용산의 지리적 변천과 전쟁기념박물관	46
부록	
한강유역 지질도	49

답사 개요

■ 목적

- 본 답사는 “AI활용지리조사현장연구6” 교과목의 목표를 실제 공간에 적용하여 지리적 사고와 현장 연구 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히 경관을 ‘보는 것’을 넘어, 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며,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공간을 통해 지형, 수문, 인간 활동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자연 환경과 인간 활동이 결합된 문화경관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리적 시각을 확장한다.
- 현장 중심의 조사 활동을 통해 지리적 탐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범람원, 구하도, 하중도 등 다양한 공간에서 관찰, 기록, 비교, 해석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제 공간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지역별 사례를 기반으로 지리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 이동 자체를 학습 과정으로 활용하는 모빌리티 기반 접근도 중요한 특징이다. 철도(강릉-서울)와 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지형, 산업, 도시 구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공간적 패턴을 읽어낸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관광 개발, 생태 복원 등 지역의 주요 이슈를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리적 통합 사고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 답사 기간 : 2026. 9. 30. - 10. 2.

■ 답사 지역 : 서울특별시

■ 참석자

- 인솔교수 : 최아수

- TA : 고다해

- 학생 : 28명

■ 학생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1	김희준	24	김예린
21	이준호	24	김가을
21	정해용	23	최정현
21	황찬우	21	길현호
22	김정훈	22	김도경
22	박서현	22	김민성
22	장재원	22	박광민
23	강지우	22	박진혁
23	이종환	22	안효일
23	장보경	22	전송빈
23	조세은	22	한영현
24	최지효	24	이충일
24	조현진	24	방민준
23	유지호	24	손유익

답사 일정

■ 1일차

시간	장소 및 내용	비고
7:10	강릉역 집결	
7:28-9:30	KTX 이동	강릉역 → 서울역
9:30-9:40	서울역 집결	
10:00-10:10	개인 짐 보관	드림게스트하우스
11:00-11:40	서울숲	
12:00-14:30	성수동	
16:00-17:00	웨이버스 방문 및 견학	
18:00-19:00	저녁 식사	
19:00-	자율 조별 활동	

■ 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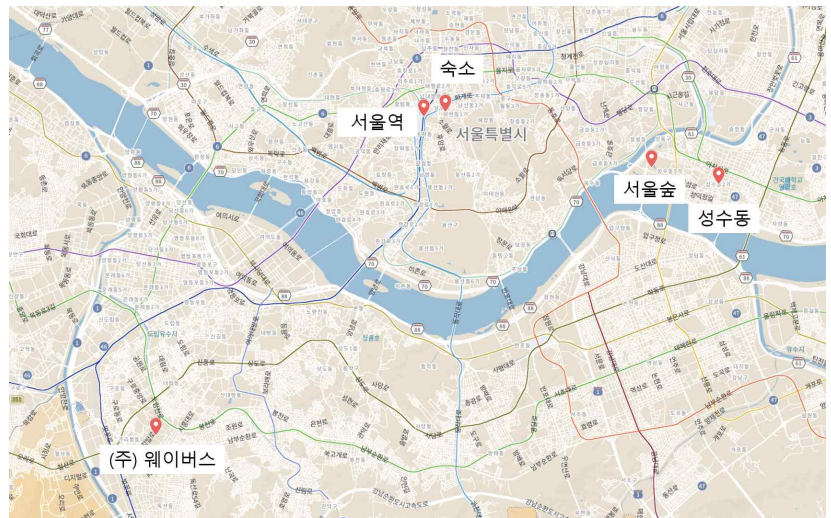
시간	장소 및 내용	비고
8:00	집결	
9:30-10:30	양재천	
10:30-15:30	조별 활동	
16:00-18:00	답사보고회(세미나)	강남역
18:00-20:00	저녁 식사	
20:00-	자율 조별 활동	서울유스호스텔

■ 3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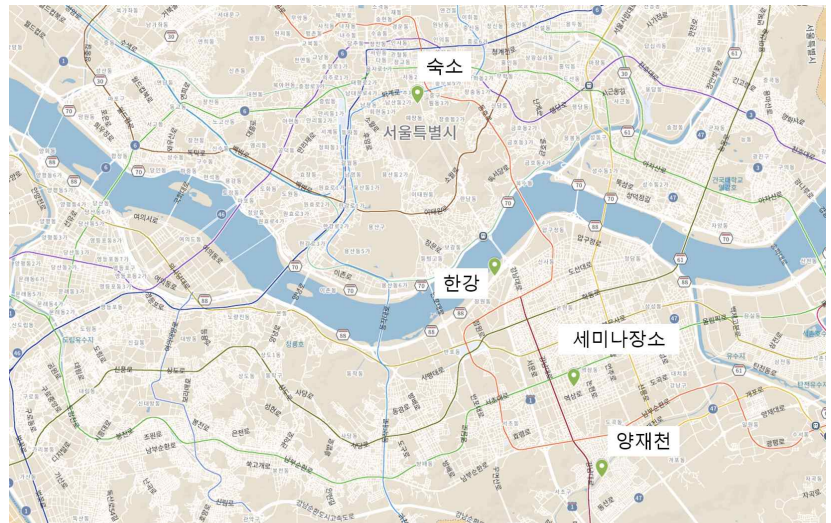
시간	장소 및 내용	비고
9:00	집결	
10:00-12:00	국립중앙박물관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30	전쟁기념박물관	
15:00	답사 종료 및 해산	

답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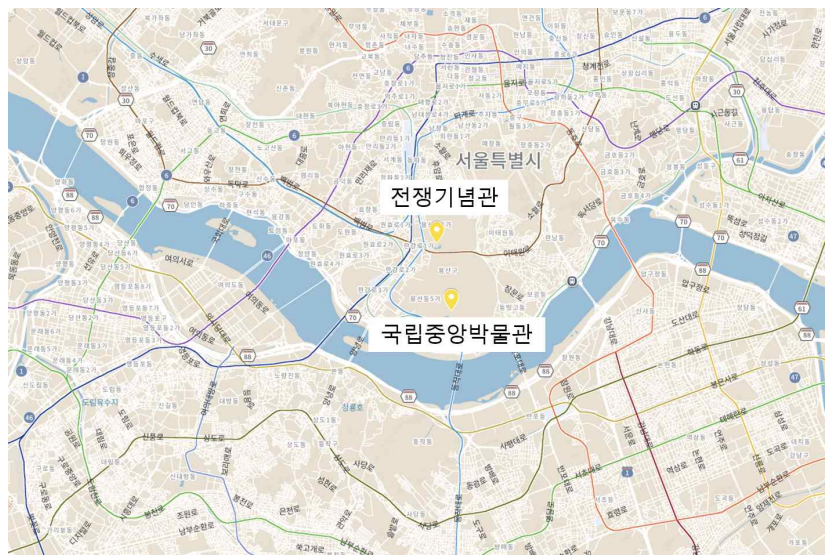
1일차



2일차



3일차



서울특별시

- 20240330 김예린 20230769 강지우 20240333 유지호 20221248 김도경 -

1. 개관

1) 위치와 행정구역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경기도로 둘러싸여 있어 여러 경기도 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쪽으로는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을 접하고 동쪽으로는 구리시와 하남시를, 남쪽으로는 성남시와 과천시,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와 김포시등이 위치해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주변 도시들과 밀접한 수도권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전체면적은 약 605.2km²이며(e-나라지표) 행정구역은 25개의 자치구와 42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5개의 자치구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북부 7개 구(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부 6개 구(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남부 5개 구(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서부 7개 구(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중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자치구는 독립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구청장과 구의회를 두고 자치행정을 수행한다. 이는 경기도 대도시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한 일반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 인구 추이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1).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과 함께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입과 전출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1992년 10,935,230명에서 2000년대까지 약 1,000만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9,930,616명으로 1,000만 명 아래로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인구 감소가 이어져 2025년에는 9,299,54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2년과 비교하여 약 163만명(15.0%) 감소한 수치이다.

서울특별시의 인구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주변 지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이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시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인구이동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전입과 전출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의 서북권·동북권·동남권을 중심으로 경기도와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인구이동 사유는 공간 범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특별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은 주택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계를 넘어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민보경·변미리, 2017). 그림 1 서울특별시 인구 추이(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3) 역사

서울은 오랜 시간 한반도의 주요 중심지로 기능해 왔다. 고려시대에는 현재의 서울 지역을 양주(楊州)라 불렀으며 1067년에는 남경(南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308년에는 한양부(漢陽府)로 이름이 바뀌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394년 한양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서울은 국가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조선시대에는 한성부(漢城府)라 불렸다(서울역사편찬원, 서울 타임라인).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성부는 경성부(京城府)로 이름이 바뀌고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광복 이후인 1946년 경성부가 서울시로 바뀌고 경기도에서 분리되었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정해졌다(서울역사편찬원, 「서울 타임라인」).

광복 이후 서울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울의 행정구역도 점차 넓어졌다. 특히 1963년에는 양주군·광주군·김포군 일부가 서울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약 269㎢에서 593㎢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1973년 시흥군과 고양군 일부가 서울에 추가로 편입되는 등 행정구역 변화를 거쳐 오늘날 약 605㎢ 규모의 서울이 형성되었다. 또한 1943년 7개였던 구는 서울 행정구역의 확대와 분화를 거쳐 현재 25개 자치구로 증가하였다(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이처럼 서울은 고려시대의 남경과 조선시대의 한양을 거쳐 오랫동안 한반도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왔다. 이후 근현대의 여러 행정적 변화와 공간적 확장을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대표적인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서울특별시 행정 구역의 확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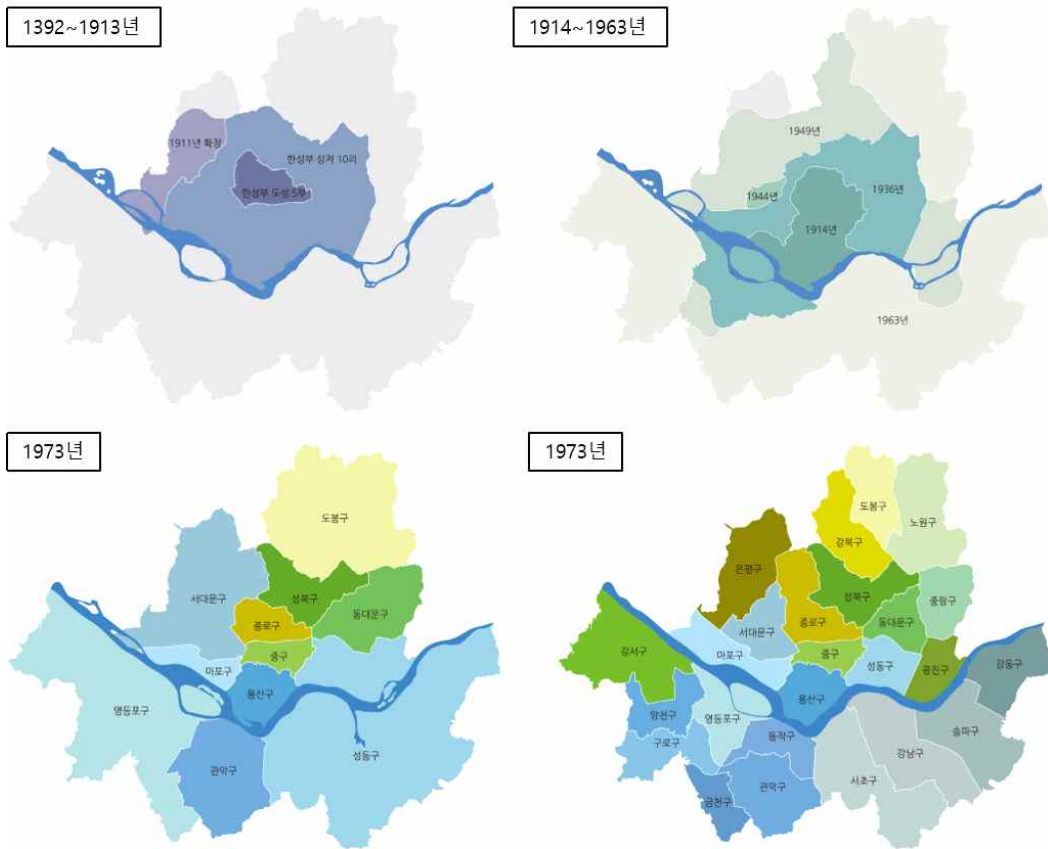


그림 2 시대별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확장(대한민국 국가지도집)

2. 서울특별시의 자연지리

1) 기후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며,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철에는 한랭건조한 기후 특성을 보인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열대야 현상의 빈발로 인해 고도의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단순한 날씨의 변동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결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심각한 환경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밀도로 개발된 거대 도시 서울특별시에서 특유의 미세 기후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피복으로 대변되는 지표면의 변화, 그리고 도심 내부의 인공적인 열 배출은 주변부보다 높은 기온을 형성하는 도시 열섬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김기중 외, 2017).

여기에 서울특별시만의 독특한 분지형 지형은 외부로부터의 원활한 공기 순환을 저해하여 도심 내부에 열기를 가두는 ‘열섬 강화 기제’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이현

호·김용진, 2010). 이러한 기후적 한계 상황은 도심 내 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며, 에너지 소비 증가와 같은 부정적 피드백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기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는 산림과 하천을 연결하는 바람길을 확보하고, 도시 내 녹지를 확충하는 등 열환경 개선을 위한 적응 전략을 도시 계획의 필수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지리적 조건과 인위적인 도시 환경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기후 변화에 맞춰 도시 공간을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2) 지형

서울특별시의 지형적 환경은 도시 이용 패턴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제약이자 기반으로 작용한다.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은 과거 도읍지 선정 당시부터 방어와 결속을 위한 핵심적 요소였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가지 확장의 물리적 경계를 형성해 왔다. 서울특별시를 둘러싼 산지는 크게 도성을 감싸 안은 내사산과 이를 다시 호위하는 외사산으로 나뉘는데, 이는 단순히 지형적 경계를 넘어 도시 구조를 지탱하는 축이다.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으로 구성된 내사산은 서울특별시의 역사 도심과 주거지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되어 왔으며,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덕양산 등 외사산은 거대한 녹지 기반이자 도시의 바람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서울특별시가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산지는 개발 밀도와 방향을 조율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었다(김동실, 2008).

강북 지역은 내사산을 중심으로 구릉지와 산지가 복잡하게 얹혀 있어 전통적인 골목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보존되어 온 반면, 강남 지역은 한강 연안의 넓은 충적 평야를 바탕으로 격자형 도로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지형적 조건이 개발의 양상을 확연하게 갈라놓았다. 산지 경계부의 변화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산지와 인접한 시가지 환경은 물리적·생태적으로 독특한 공간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지형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서울특별시의 도시 정체성을 정의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3) 하천

한강은 서울특별시의 핵심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수천 년간 도시의 성장과 궤를 같이해 왔다. 본류와 더불어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등 주요 지류들은 시가지 팽창의 방향을 규정하는 거대한 물길이자 교통망의 축을 형성하였다. 과거 범람원이었던 하천 주변의 저지대들은 현대에 이르러 대규모 업무 및 주거지로 변모하였으며, 이러한 변천 과정은 서울특별시 도시지리학의 핵심적 연구 대상이다(홍승석, 2015).

도시화 과정에서 하천은 매립과 직강화, 제방 축조 등을 거치며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 과거에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홍수 예방을 위한 치수 중심의 하천 관리가 지배적이었으나, 현대의 서울특별시는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하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이수와 치수의 기능을 넘어 생태적 가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대상으로 재평가받고 있으며,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 네트워크 복원이 도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서울연구원, 2025).



그림 3 한강수계지도(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2026)

3. 서울의 문화지리 - 활력있는 도심 공공 공간

1) 소비와 팬덤의 공간

K-팝·K-드라마 산업의 성장은 특정 사옥과 상권을 팬덤의 성지(pilgrimage site)로 전환시키는 도시 현상을 낳았으며, 이는 미디어 유도 관광(media-induced tourism)의 국내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류 문화콘텐츠 장르 중 방한 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음식·뷰티 팬덤 다음으로 음악·엔터테인먼트 팬덤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구체적 목적지가 용산·성수·상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물리적 거점이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이러한 현상은 하이브, SM 등의 유명 연예인 소속사 사옥 근처 상권의 팬덤 관광지 형성에 영향을 준다. 팬덤이 특정 기간 카페를 대관해 최애 멤버의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카페는 홍대·성수·강남 일대에 산발적으로 출현했다가 소멸하는 유동적 경관으로, 매장 외벽의 대형 배너와 포토카드 증정 이벤트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경관은 소상공인의 임대 수익과 결합되며 팬덤 소비가 지역 상권의 단기적 매출 구조에 편입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명동과 성수동은 세대·소비 방식이 다른 두 소비 클러스터다. 명동이 단체관광-면세 쇼핑 모델이라면, 성수동은 개별관광-경험소비 모델에 기반한 신흥 클러스터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이중적 과정을 보여준다(Zukin, 2010).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자본이 유입되며 상권의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소상공인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하며, 성수동의 경우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 방문객을 주된 고객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된다(김상현, 2016). 성수동 연무장길은 과거 수제화 공장 골목이었으나 무신사 스탠다드, 스투시 플래그십,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과 유사한 쇼룸형 매장이 입점하며 패션 성지로 전환되었고, 공장 골조를 노출한 채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가 경관 문법으로 자리잡았다. 상설 매장보다 2주~1개월 단위의 팝업스토어 회전율이 높아 일시적 경관(temporary landscape)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구형모, 2020). 명동8길에는 올리브영 명동타운, 이니스프리 등 K-뷰티 로드숍이 밀집하고, 홍대입구 상권의 외국인 합산 결제액은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하는 등 패션·뷰티 중심 소비의 지리적 확산이 뚜렷하다(매경이코노미, 2025).

2) 전통 유산의 상품화

경복궁·북촌·익선동 일대는 조선시대의 유산이 21세기 관광·상업 논리 속에서 재맥락화되는 대표적 공간으로, 유산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heritage)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이는 물리적 유산 자체보다 그것이 소비되는 방식에 주목하는 관점으로, 앞서 살펴본 팬덤 성지화·소비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전통 공간 역시 관광·상업 논리에 따라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도입된 한복 착용자 고궁 무료입장 제도 이후 한복 차림 방문객은 2022년 54만 명에서 2025년 207만 명으로 3년 사이 260% 이상 증가하였다(궁능유적본부, 2026). 경복궁역~광화문 사이 사직로 연변에는 한복대여점이 밀집해 있으며, 1020세대의 '한복 체험' 놀이 문화는 고궁 무료입장 정책과 SNS 인증샷 문화가 결합되며 형성되었다는 분석도 있다(Jeong & Lee, 2018). 다만 실제 유통되는 상품 다수는 화려한 색감의 개량·컨셉 한복이라는 점에서 전통한복의 원형성과 상업적 변용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Oh, 1998).

북촌한옥마을은 실거주 가옥과 상업화된 한옥(카페·게스트하우스)이 혼재하며 관광객 급증에 따른 소음·사생활 침해로 오버투어리즘 갈등을 겪고 있다(윤혜진, 2020). 서촌 한옥은 2008년 한옥선언 이후 2010~2011년 사이 재산가치가 평당 1,700만 원에서 2,500~3,000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고, 2012~2014년 사이 주거면적은 8.8% 감소한 반면 음식점·카페는 129.3% 증가했다(서울특별시, 2015). 익선동 한옥거리 역시 협소한 골목의 한옥이 이자카야·카페·디저트숍으로 전용된 대표 사례로, 그 상업화 과

정은 주거지 인식 단계, 관리방안 표류기의 문화상업지역 전환 단계, 급속한 상업화 단계의 3단계로 구분된다. 삼청동 가로변에서도 유사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과 장소성 인식 변화가 나타난다(김희진, 2016). 즉 북촌·서촌·익선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실거주 공간이 상업화된 관광 공간으로 대체되는 공통된 경로를 보여준다.

3) 광장·거리와 공공공간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천·덕수궁 돌담길은 보행과 광장이라는 공공적 경험이 응축된 공간이다. 하나의 공공공간이 일상적 휴식처·관광지·집회의 장이라는 복수의 공공성(multiple publicness), 즉 서로 다른 이용 목적이 한 공간에 겹쳐 존재하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이 성격들이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김지현, 2023). 2022년 재구조화된 광화문광장은 기존 중앙분리대형 광장에서 대규모 보행 공간으로 전환되었으며, 대규모 집회와 서울빛초롱축제 등 계절 행사가 반복되는 다목적 공간이다.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은 잔디광장 형태로 조성되어 겨울철 스케이트장 등 계절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도심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저수호안석을 조선 8도를 상징하는 석재조형물로 구성하는 등 물리적 하천 복원을 넘어, 도시교통 정책을 시설·차량 중심에서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으로 전환시킨 도시재생의 전환기제로 평가된다(황기연·나태준, 2005; 양운재, 2008). 다만 복원 이전에는 지역 교통 정체와 인근 상권 쇠퇴 등의 갈등도 수반하였다. 덕수궁 돌담길은 정동 일대의 근대 건축과 결합되어 걷고 싶은 거리로 인식되어 왔으나, 도로 폭이 협소해 보행자와 관광버스 정차 수요 간의 갈등이 상존한다. 이처럼 서울의 대표적 광장·거리는 조성 목적과 실제 이용 양상 사이에 간극이 있으며, 이는 앞선 소주제들에서 다른 소비·유산 공간과 마찬가지로 공간의 상징적 의미와 실제 이용자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울의 문화지리를 관통하는 공통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4. 대서울계획과 영동지구(강남) 개발

1) 광복 이후 서울의 도시 개발 과정

광복 이후 서울의 도시 개발은 크게 대서울계획과 영동지구(강남) 개발, 뉴타운 사업과 청계천 복원 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을 공업·상업·주택구역으로 구분하고 근교에 문화적 주택구역을 조성하는 한편, 교통망 확장을 통해 근교의 발전을 유도하는 ‘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계획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

발로 중단되었다(황윤희, 2023). 이후 전쟁으로 서울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단순한 도시 복구를 넘어 전반적인 도시 재편과 재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1950년 11월 ‘30년 후의 수도 대서울계획’이 등장하였다(그림4).

휴전협정 이후 서울이 수도 기능을 회복하면서 1955~1960년 사이 인구는 143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급증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전쟁 이후 월남민과 피난민의 복귀, 이농인구의 증가, 교육을 위한 인구 유입 등이 서울의 인구 집중을 심화시키면서 1960년대에 들어 서울은 극심한 인구 과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3년 서울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서울을 은평, 송인, 구로, 독섬 4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도심 기능을 분산하고자 하였다(이길훈, 2024).



그림 4 195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도(정이정, 2021)

한편 1963년 강남이 서울에 편입된 이후 강북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서울의 도시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강남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초기 강남은 주거지 이외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강북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안창모, 2010). 이에 서울시는 강남의 인프라 개선과 강북 인구의 분산을 위해 경기고등학교 등의 명문 학교의 이전을 추진하였고 이는 현재의 강남 8학군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오제연, 2015). 이후 아파트 건설과 행정·사법 기능의 이전, 부도심 형성 등이 이어지면서 강남의 도시 기능이 확대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교육·사회문화 기능의 상당 부분이 강남으로 이동하였다(안창모, 2010).

2) 뉴타운 사업과 청계천 복원 사업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에서는 노후 주거지와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 지역 간 격차, 도시의 녹지·생태 문제 등이 새로운 도시문제로 부각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난개발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02년 뉴타운 사업을 발표하였다. 뉴타운 사업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재개발구역을 광역화하여 생활권 단위로 종합적인 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차 사업에서는 은평, 길음, 왕십리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2차와 3차 사업을 통해 총 26개 지구가 지정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뉴타운 사업과 함께 서울 도심의 환경과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계천 복원이 추진되었다. 당시 청계천 복개도로와 고가도로의 노후화로 대규모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2002년 민선 3기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사업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태평로에서 동대문을 거쳐 성동구 신답철교까지 총 5.8km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청계천 복원 사업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그림5)와 같으며 복원 사업 이후 도심 속 생태 공간 확보와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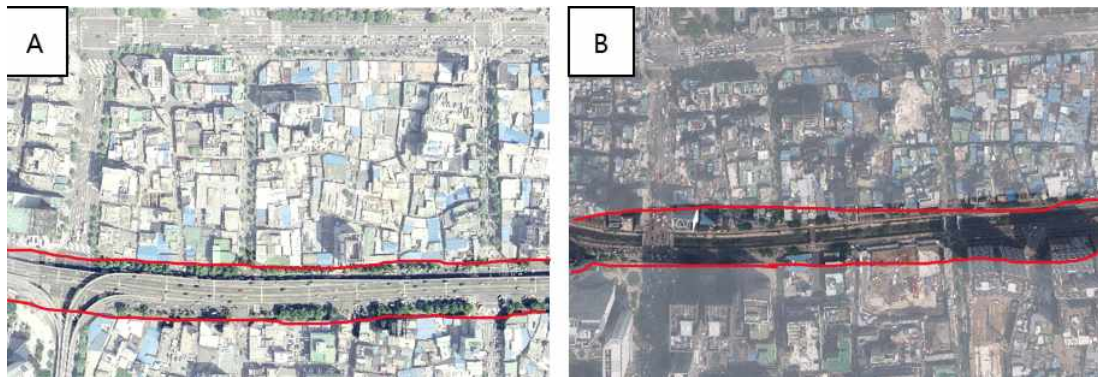


그림 5 중구 삼각동 일대의 청계천, 과거와 현재의 모습(A: 2002년, B: 2025년. 국토지리정보원)

3)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현재 서울시는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의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본보고서). 이를 위해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미래 성장거점의 육성과 연계’, ‘기술 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래 위기에 준비’,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이라는 7대 공간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상 공간 확보, 산업자원 클러스터 조성,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체계의 도입, 탄소중립도시 조성, 수변공간 활용 및 다기능 복합지역 조성 등이 있다(서울 도시공간 포털).

5. 참고문헌

- 구형모. (2020). 서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의 시·공간 분포 탐색: 커피전문점의 밀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20(1), 117-129.
- 궁능유적본부. (2026).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및 방문객 통계.
- 김기중, 안영수. (2017). 도시열섬 지역에 대한 정의 및 구분 방법론에 관한 비교연구. 지역연구, 33(2), 47-59.
- 김민석, 황성환, 윤선권, & 최현석. (2025).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 하천관리방안. 서울연구원.
- 김상현. (2016). 성수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특성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7), 81-105.
- 김지현. (2023). 공공공간의 다중적 공공성: 서울광장의 사용허가 제도 논란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 김태봉. (2007). 도시하천의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서울.
- 김희진. (2016). 문화특화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장소성인식 변화의 특성: 삼청동과 신사동 가로변을 사례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51, 97-112.
- 매경이코노미. (2025). 명동 넘어... 을·충·당에 반하다 [데이터로 그려본 2025 외국인 상권 지도].
- 민보경, 변미리. (2017). 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서울도시연구, 18(4), 85-102.
- 서울역사편찬원. (2016). 서울2천년사 제1권: 총설. 서울역사편찬원.
- 서울특별시. (2015).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 안창모. (2010).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41), 63-97.
- 양운재. (2008). 도시재생 전환기제로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역할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9(4).
- 오제연. (2015). 1976년 경기고등학교 이전과 강남 '8학군'의 탄생. 역사비평., 198-233.
- 윤희진. (2020).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과 정책 대응방안 연구: 복촌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2(5).
- 이길훈. (2024). 1960년~1980년 서울 도시계획과 인구 분산. 도시연구,(36), 119-138. 10.22345/kjuh.2023.07.36.119
- 이현호·김용진 (2010).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열섬현상 특성 변화와 도시설계적 대안 모색에 관한 기초연구
- 정이정. "1950-60년대 서울 도시계획의 수립과정과 의미."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대대학원, 2021. 서울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 황기연, 나태준. (2005).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도시연구.
- 황윤희. (2023). 전후 서울의 전재복구계획 논의와 도시계획 추진. 한국학논총, 60, 125-164.
- Jeong, S., & Lee, Y. (2018). 1020세대의 '한복 체험' 놀이문화 연구. 복식문화연구(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 Oh, Y. (1998). 한국 전통복식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연구.
- Zukin, S. (2010). Naked City: The Death and Life of Authentic Urban Places. Oxford University Press.
- 김동실. (2008). 서울의 지형적 배경과 도시화 양상 (국내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김용학,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본보고서」 2023.02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국토지리정보원, <https://map.ngii.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https://www.mcee.go.kr/hg/web/index.do?menuId=1269>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

서울 도시공간 포털, <https://urban.seoul.go.kr>

서울 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서울역사편찬원 <https://history.seoul.go.kr/index.do>

서울 연구데이터 서비스, <https://data.si.re.kr/data-seoul>

지표누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enara>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2026). 2024년 한국하천일람. 하천정보관리시스템(RIMGIS), <https://www.river.go.kr>

한강유역과 한강공원

-20221250 김민성, 20221258 박진혁, 20221264 안효일, 20240311 이충일-

1. 개관

한강은 백두대간의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 하천의 규모는 유역면적 약 26,018 km², 유로연장 514.8km에 이며, 유량을 기준으로 할 때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에 해당한다(한강유역환경청). 한강은 총 705개의 하천과 전체 연장 7,256km의 하천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의 본류는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면서 형성되며, 이후 서울을 가로질러 서해로 이어진다(그림 1). 이러한 한강은 넓은 유역과 긴 유로를 바탕으로 중부지역의 주요 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도 중요한 지리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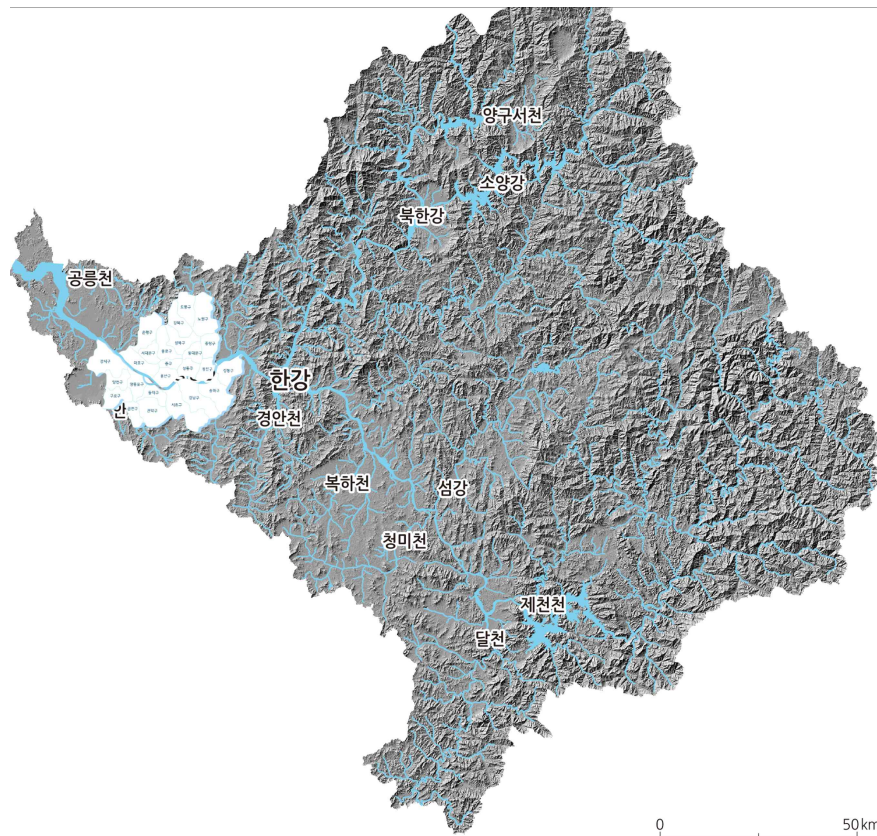


그림 1 한강 유역(국가지도집 2권 2020)

한강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 왔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아리수(阿利水)’, 백제의 ‘옥리하(郁理河)’, 신라의 ‘한산하(漢山河)’ 등으로 불렸으며, 고려시대에는 ‘열수’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백제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수(漢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한강(漢江)’이라는 명칭이 정착하였다. 한편 한강이라는 이름이 ‘크고 넓은 강’을 의미하는 우리말 ‘한가람’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경강(京江)’이라고도 불렸다(한강유역환경청). 한강 하류 지역은 한반도 중앙부의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신석기시대부터 문화 발달의 터전이 되었으며, 삼국시대 이후에는 세력 다툼의 요충지로 기능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지면서 한강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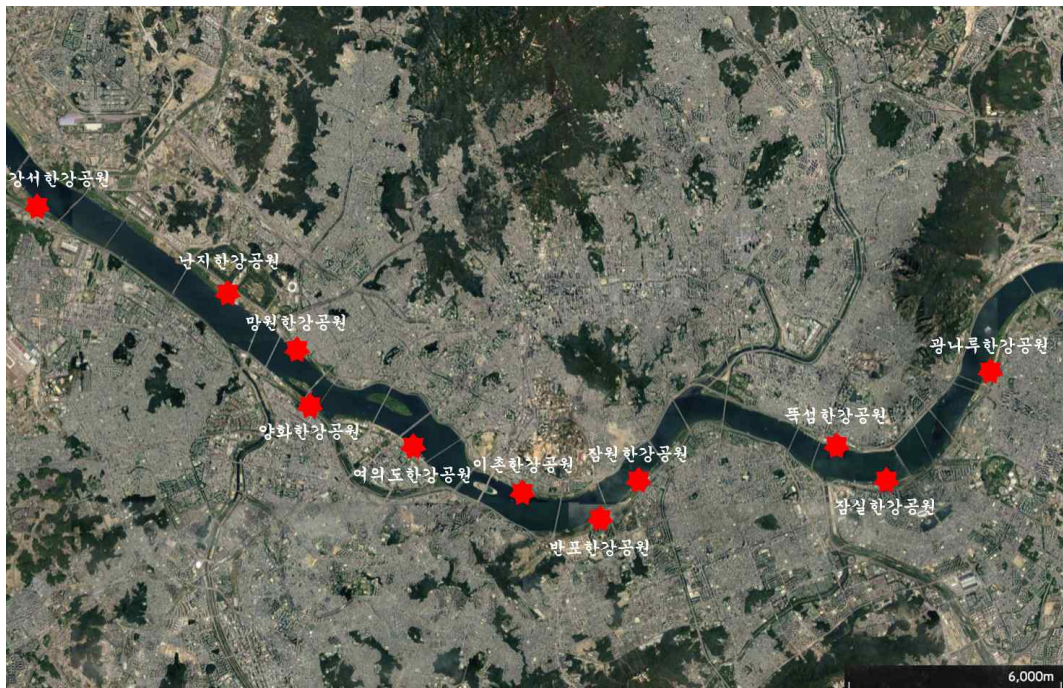


그림 2 한강공원의 위치

오늘날 한강의 대표적인 도시 경관 가운데 하나인 한강공원은 한강의 공간적 기능이 시민의 생활과 여가 중심으로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시행된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을 계기로 한강변의 둔치에 녹지와 체육 시설, 산책로 등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후 한강공원은 단순한 녹지나 체육 공간을 넘어 산책, 자전거, 운동, 문화활동,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발전하였다(서울기록원). 현재 한강공원은 광나루·잠실·독섬·잠원·반포·여의도 등 11개 지구로 나뉘어 있으며(그림 2), 각 지구는 주변 도시공간의 특성과 입지에 따라 서로 다른 경관과 이용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강공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 공간에 인간

의 개발과 이용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도시공간이라는 점에서 지리적 의미를 가진다.

2. 자연지리 경관

한강 유역의 대부분은 경기육괴에 속하며, 남한강 유역의 일부만 옥천조산대에 속해 있다. 경기육괴는 주로 시생대와 원생대의 각종 변성퇴적암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이 이를 관입한 상태로 나타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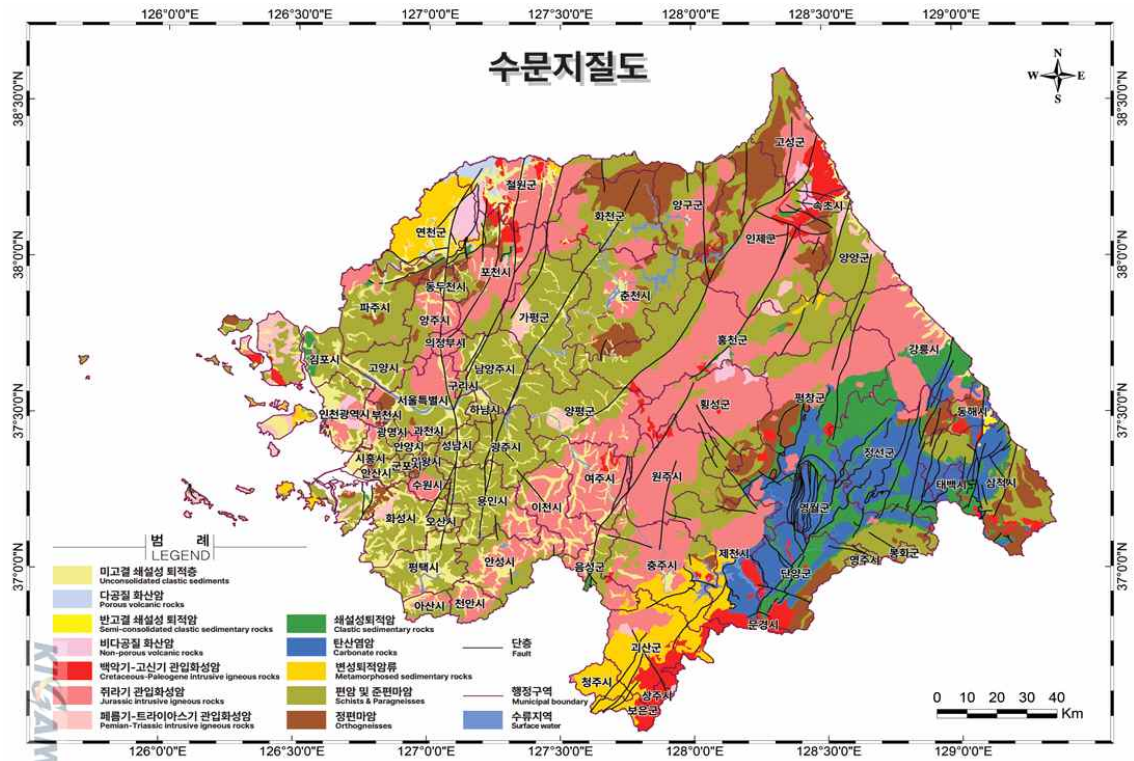


그림 3 한강 권역 수문지질도(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한강의 하계망은 전체적으로 많은 지류가 주요 본류에서 나뉘어가지 모양으로 뻗어 나간 수지상을 이루고 있다(그림 4). 그러나 구간에 따라서는 곧바르게 뻗은 유로도 나타난다. 팔당협곡 하류의 한강 본류에서도 마포에서부터 임진강과 만나는 하구 부근까지 유로가 바르게 뻗어있다. 한편, 남한강과 북한강 중상류의 본류 및 지류에서는 물이 심하게 구불구불 흐르는 감입곡류하도가 널리 발달되어 있다. 단종이 유배되었던 영월의 청령포가 그 대표적인 예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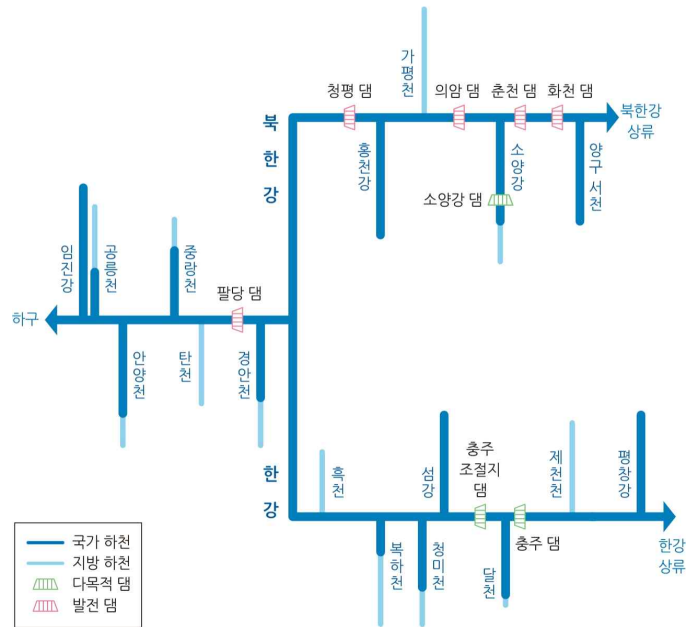


그림 4 한강 모식도(대한민국 국가지도집)

한강을 이야기할 때 하중도를 지나칠 수 없다. 한강의 독특한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며 서울의 역사, 생태,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중도란 하천에 있는 섬을 일컫는다. 한강의 대표적인 하중도는 단연 여의도이다. 여의도의 여(汝)자는 ‘너’를 뜻하고 의(矣)는 어조사로 ‘네 마음대로’ 혹은 ‘너의 것’을 뜻한다.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메마른 황무지라 아무 농사도 되지 않아 ‘너가 가져라’며 붙인 이름이 여의도라고 한다. 실제로 여의도는 한강의 퇴적작용에 의해 오랜 세월 모래가 쌓였고(그림 5-A), 모래톱으로 이루어져 한강의 물이 불어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이용 가치가 부족했다(천현숙,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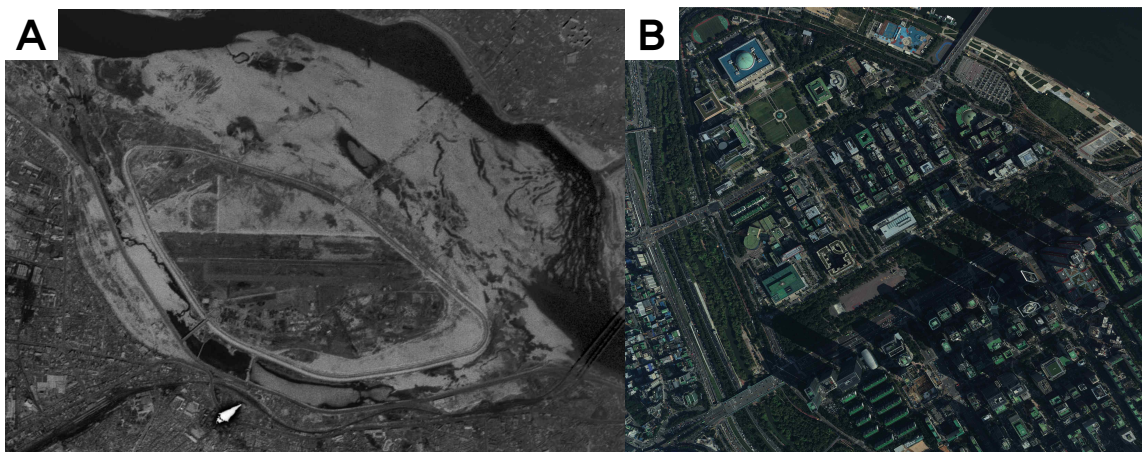


그림 5 여의도 항공사진(A:1969년, B:2021년, 국토정보플랫폼)

단순한 모래톱에 그치지 않고, 현재 국회의사당 자리에 있던 작은 암석 구릉인 양말산을 기점으로 토사가 지속적으로 불으면서 둔치와 범람원이 확장되었다. 이후

1968년 한강개발사업으로 홍수 때마다 침수되던 여의도를 도시로 쓰기 위해 인근 밤섬을 폭파했다. 밤섬에서 채취한 암석으로 여의도 가장자리에 독을 쌓아 수위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된 인공 하중도로 탈바꿈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모래섬이었던 여의도가 인간의 손을 거쳐 인공 도시화가 된 것이다(그림 5-B).

여의도의 지형적 특징은 평탄한 범람원 및 모래 사구, 수물길의 분리, 기반암 구조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배수가 잘되는 미세한 모래 토양 기반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비행장으로 쓰였을 만큼 평탄하다. 수물길은 북쪽 본류와 남쪽 샛강의 쌍방 흐름으로 나뉜다. 마포 쪽 본류는 수심이 깊고 넓으며, 영등포 쪽 샛강은 유속이 느려 자연 습지 지형을 유지한다. 또한 단단한 기반암 덕분에 국회의사당 등 대형 중량의 건축물 입지가 가능했던 지질학적 배경이 있다(서울역사박물관).

3. 인문지리 경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강 둔치와 한강공원 경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시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 아시안게임(1986)과 서울올림픽(1988)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다. 일본 나고야를 제치고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서울’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되었다. 한국 정부와 서울시, 정·재계가 전력을 다해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긴 했으나 세계에 선보일 서울은 과거 올림픽 개최지와 비교하여 그 위세를 ‘과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서울시와 한국정부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표어 아래 국제도시, 선전도시로 탈바꿈 해야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이준희, 2025). 사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하도(河道)를 준설하고 직선화하여 저수로와 고수부지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홍수 조절 능력을 높였다. 둘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라는 두 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천 양안에 건설하여 도심과 강남·강동 지역을 잇는 간선 교통축을 완성하였다. 셋째, 준설로 확보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과 녹지,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이른바 ‘한강시민공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여가 공간을 만들어냈다.

조선시대부터 한강은 한양 도성과 지방을 잇는 핵심적인 수운 교통로였다. 마포나루, 서강나루, 송파나루, 독섬나루 등 여러 나루터가 발달하며 곡물과 소금, 어물 등이 오가는 물류의 거점 역할을 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상업 취락이 형성되었다. 즉 오늘날의 마포나 독섬과 같은 지명은 과거 한강이 교통과 상업의 축이었음을 보여주는 경관적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강 연안의 절경은 정자와 누각이 들어서는 배경이 되어 인문경관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강대교

와 경인선,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통이 근대적 방식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이후 서울의 공간 구조가 강북 중심에서 점차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조성된 한강시민공원은 2000년대 들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등을 거치며(그림9-A) 단순한 체육·녹지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도시여가 경관(그림9-B)으로 진화하였다. 각 지구는 입지와 배후 지역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경관적 특징과 이용 양상을 보인다. 그 중 한강공원 특화사업의 첫 작품인 반포한강공원을 대표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반포한강공원 사업의 목적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반포대교 분수설치 및 잠수교 남·북단 광장 조성 한강시민 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본방향은 한강르네상스의 3대 권역 중 반포·잠원권역을 중심(Urban Core) 권역으로 하여 잠수교를 활용한 강남·북 연결 브리지 파크(Bridge Park) 조성을 통한 연계이다. 반포대교 분수 설치, 남·북단 광장 등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민문화를 담는 플로팅 아일랜드(Floating Island)의 조성이다. 공간구상은 한강둔치와 잠수교를 연결해 서울의 25개 교량 중 최초의 보행화사업 교량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복궁, 남대문, 용산공원, 사법단지, 예술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남북보행로 연결로 역사 문화의 서울상징가로를 연결하는 구상이다(조운승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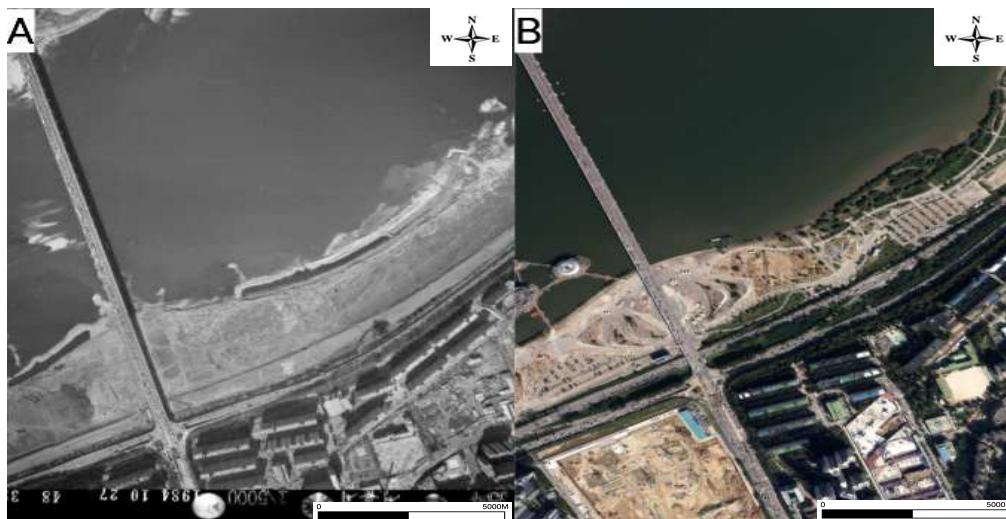


그림 6 반포한강공원 과거와 현재 모습(A: 1984년, B: 2020년, 국토정보맵)

종합해보면 반포한강공원의 설계특성은 디자인 서울의 영향으로 가시성을 강조하고 랜드마크화, 경관에 대한 고려, 주변환경과 연계 강화로 분석된다. 당시 반포한강공원에 대한 담론들은 소득 증대와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문화 변화 등 새로운 수

요에 맞게 한강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시설을 보강하여 이용 및 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고 반포대교 분수설치로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었고 도시브랜드로서 한강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였다고 했다. 외관 가꾸기에 치중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과 주변지역을 정비해 한강을 서울의 상징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개발정책으로 평가한다(서울특별시).

4. 향후 전망 및 과제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현재 한강의 수상 공간은 연간 한강공원 이용객(6,900만 명) 대비 수상 이용객(90만 명)이 현저히 적어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연간 1,000만 명이 한강 수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본 계획(그림 8)은 ‘일상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수상 오피스와 한강 리버버스 등을 도입하고, ‘여가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자 케이블 수상스키장 등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거점’ 확보를 위해 잠실 마리나 및 여의도 서울항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2030 리버시티, 서울]의 3대 전략이다(서울특별시).

서울시는 과거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생물종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던 성과를 들어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강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한강 생태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세계일보). 과거의 사업이 '육지 둔치 중심의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리버시티 서울' 사업은 수상에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생태계 보존과 수변 개발의 동시추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7 2030 리버시티 서울 모식도(서울특별시)

따라서 리버시티 서울 사업

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태 복원 성과에만 의존하기보다, 수변 개발과 생태 보전을 성공적으로 양립시킨 해외 선진 도시들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5. 참고문헌

- 이준희. (2025). 서울올림픽과 도시경관의 재구성 - 한강종합개발사업과 목동 신시가지 개발. 동방학지, 211, 249-277.
- 조윤승, 박수지. (2021). 민선자치시대 서울시 정책담론과 한강공원 변화양상. 국토연구, 49-72.
- 천현숙. (2000). 근대성의 상징, 여의도. 국토, 77-81.
- 김주영,〈한강 물 위에서 일하고, 놀고, 호캉스까지… ‘리버시티 서울’로〉,《세계일보》,2024.04.24.
- 김향미,〈화보로 보는 한강종합개발 30년〉,《경향신문》,2016.09.17.
-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kor/main.do>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
- 미래한강본부 <https://hangang.seoul.go.kr/www/main.do>
- 서울기록원 <https://archives.seoul.go.kr/main>
-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www/NR_index.do?sso=ok
-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https://data.kigam.re.kr/>
- 한강유역환경청 <https://mcee.go.kr/hg/web/main.do>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서울숲

- 20230794 조세은, 20240328 방민준, 20240335 손유익, 20240382 김가을 -

1. 서울숲의 위치

서울숲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273’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2002년 시민의 녹색 권리를 위해 독성 개발 사업 대신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조성 당시 5,000여 시민의 기금과 봉사로 2005년 6월 18일 도시숲으로 탈바꿈하였다. 총 면적은 480,994m²로 서울 도심에 조성된 대규모 녹지공간에 해당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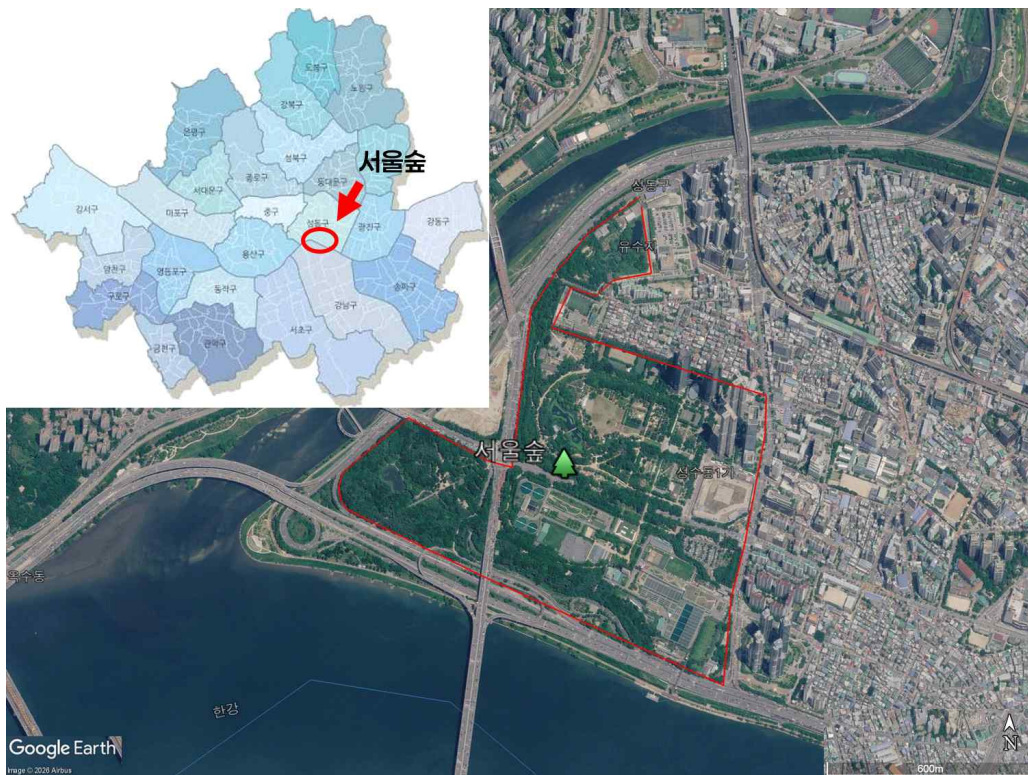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숲 위치(구글어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서울숲은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고 한강-용산-남산-청계천-서울숲-한강으로 연결 되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녹지 축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자연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과 중랑천에 인접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서울의 공원).

2. 서울숲의 형성과 변화

1) 서울숲 부지의 과거 모습

현재의 서울숲이 자리한 독섬 일대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온 공간이다. 조선 전기에는 서울의 동쪽 교외로서 국가의 행사와 국영목장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고, 상업적 농업을 통해 서울에 식료품을 공급하는 생산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한강 수운의 중간 기착지로서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독섬은 서울의 생필품을 공급하며 대도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서울 근교 지역으로 기능하였다(김동민, 2019).

1908년에는 독섬에 근대적인 상수도 시설인 독도수원지 제1정수장이 준공되었다(그림 2). 독도수원지 제1정수장은 서울에 최초로 건설된 근대적 정수 시설로서, 서울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조은별, 2013). 1930년대 이후에는 농촌적 경관을 바탕으로 골프장·경마장·유원지 등이 들어서며 서울의 근교 행락지로도 이용되었다(김동민, 2019).

1954년에는 독섬에 서울경마장이 개장하였다. 독섬 경마장은 한국전쟁으로 기존 신설동 경마장이 파괴된 이후 이를 대신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이후 약 36년 동안 독섬의 주요 시설로 자리하였

다. 1989년 8월 31일에는 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독섬에서 경마장으로 이용되던 공간의 기능이 변화하게 되었다(조문기·임석원, 2014). 이후 해당 부지는 서울숲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공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서울숲이 개장하면서 시민을 위한 대규모 도시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김우주·손용훈, 2015).



그림 2. 독도수원지 제1정수장(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서울숲 조성 과정

서울숲은 2003년 설계공모전을 통해 조성된 친환경 도시공원이다. 당시 설계공모

전은 공원 녹지가 부족한 서울 동북부 지역에 시민이 참여하는 자연 친화적인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상민·조정송, 2004). 설계공모전 이후 2003년 12월 서울숲 조성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서울시는 독점 일대를 주거·상업·업무 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대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약 1,156천㎡(약 35만평) 규모로 조성된 서울숲은 문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자연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한강수변공원 등 5개의 테마공원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신상영 외, 2006). 이를 바탕으로 서울숲의 이용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였으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공원으로 조성 되었다(이상민·조정송, 2004).

3) 도시 변화와 서울숲의 관계

서울숲 조성은 공원 내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의 도시공간에도 영향을 주었다. 서울숲 조성계획이 수립된 2003년과 2014년의 주변 지역을 비교한 결과, 서울숲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서 도로와 필지, 건축물의 용도 등 도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 지역의 약 58%에서는 도시 형태가 이미 변화하였거나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숲 조성과 함께 추진된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이 도시공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숲 주변에서는 공원 조성과 함께 도로와 가로체계가 정비되고, 기존의 주거·공업 중심의 토지 이용과 다른 형태의 건축물과 시설이 나타나면서 도시 경관이 변화하였다(김우주·손용훈, 2015).

또한 서울숲은 성수동 일대와 인접해 있어 공원 조성 이후 주변 지역의 공간적 연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기존의 주거 및 공업지역 사이에 대규모 녹지공간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여가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서울숲과 주변 상업·문화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형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숲은 단순히 도시 안에 조성된 공원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도시 경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도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서울숲과 도시공간

1) 공원 조성과 주변 도시 형태의 변화

서울숲은 주변의 주거·상업·산업 공간과 인접해 있다. 서울숲 조성과 주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접 지역의 도로와 필지, 건축물의 용도 등 도시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인접 지역에서는 도로와 필지, 건축물의 용도 등이 달라졌으며, 일부 주거지역에서는 지역의 자발적인 활성화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숲 조성

이후 주변 지역에서는 기존 도시공간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변화와 기존 공간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변화가 함께 나타났다. 도시공간의 변화는 점진적 이질적 변화, 유기적 변화, 급진적 이질적 변화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점진적 이질적 변화는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기존 공간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17.5%를 차지한다. 유기적 변화는 기존 공간의 구조와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방식으로 14.1%, 급진적 이질적 변화는 필지 통합, 대규모 필지 및 새로운 도로 체계 형성, 고층 건물 개발 등 기존 도시공간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방식으로 68.4%를 차지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은 급격한 도시 형태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우주·손용훈,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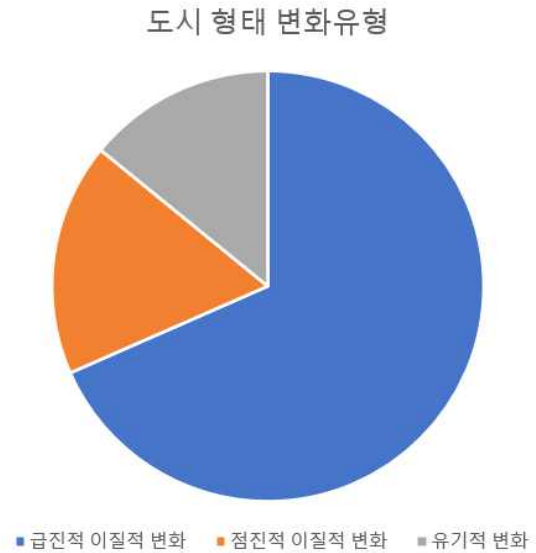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숲 주변 도시형태 변화 유형별 비율(김우주·손용훈, 2015)

2) 서울숲의 기능과 이용

서울숲은 산책과 휴식, 여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이제이·성종상, 2015). 도시공원의 이용자 분포는 공원의 위치와 시설, 주변 도시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성동구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공원별 이용자 분포와 이용자 핫스팟의 위치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공원별 영향권 역시 주변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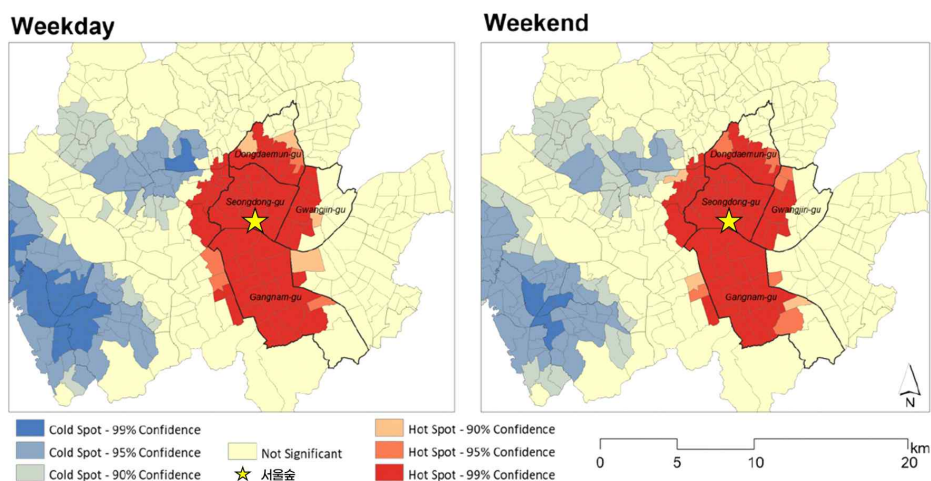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숲의 평일·주말 이용자 핫스팟 분포(조민균 외, 2023을 재해석함)

서울숲의 녹지공간은 다양한 식생과 생물종이 존재하는 도시 녹지환경을 구성하며, 도시의 생태적 기능과 관련된다. 서울숲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원칙이 적용된 곳으로, 서울시의 생물지표종 조사에서도 다양한 생물지표종이 확인되었다(백두희·김신원, 2023). 이러한 녹지공간은 서울숲이 도심 내에서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 녹지공간으로 기능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3) 서울숲 주변의 산업·상업 공간과 젠트리피케이션

서울숲 주변의 도시공간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산업지역이 혼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서울숲과 인접한 성수동은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하는 준공업지역으로 형성되었으며, 수제화 제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후 산업구조와 기존 산업시설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공장과 창고 등의 공간에 카페, 음식점, 작업실, 갤러리 등 새로운 상업·문화시설이 입지하였다(김상현·이한나, 2016). 2010년대 이후에는 기존 제조업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적 기능의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는 공간과 새로운 상업·문화시설로 전환된 공간이 함께 나타났다(김종성·김결, 2021).

서울숲 주변 지역의 이러한 상업적 기능 확대는 젠트리피케이션과도 연관되어 나타났다. 서울숲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서울숲 조성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지수의 분포와 방향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서울숲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문승운 외, 2017).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서울숲 조성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기존 산업시설의 재활용, 교통 접근성, 토지와 건물의 특성, 문화·예술 활동 및 도시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숙진, 2020).

4) 서울숲과 주변 도시공간의 관계

이러한 양상은 서울숲이 공원 내부의 녹지공간을 넘어 주변 도시공간의 토지 이용과 도시 형태, 상업·문화적 기능과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숲 조성과 주변 도시개발에 따라 도로와 필지, 건축물의 용도 등이 달라졌으며, 공원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상업적 기능의 확대와 젠트리피케이션이 함께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숲은 공원 내부의 녹지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의 토지 이용과 도시 형태, 상업·문화적 기능과 연결되는 도시공간으로 나타난다.

4. 서울숲의 현재와 미래

서울숲은 도심 속 대규모 녹지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높은 방문율을 보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다. 과거 경마장과 골프장이었던 공간이 공원으로 탈바꿈한 이후, 방문객들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공간에 대한 중요성, 즐거움, 자기표현 등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장소 만족도와 감정적 충성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서울숲이 단순한 일회성 방문지를 넘어 시민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맺는 장소성을 획득했음을 시사한다(전수현·박세혁, 2014).

도심 대형 공원 주변의 상업화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행태는 이용자 그룹 간에 뚜렷하게 분화되어 나타난다(정해인 등, 2017). 고령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에게 서울숲은 신체 활동과 일상적 휴식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인프라로 기능한다. 반면,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층과 관광객은 성수동 상권과 연계하여 사진 촬영 및 소풍을 즐기는 소비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서울숲은 환경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대규모 녹지로서 주변 지역의 미기후 조절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기여하며, 폭우 시 빗물을 저장하는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운수, 2006). 아울러 2005년 조성 당시 기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이 아닌 시민과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조성한 상향식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최근 서울숲 일대는 공간 개발을 둘러싼 갈등에 직면해 있다. 특히 40여 년간 운영되었던 공원 인근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개발 주체는 공공기여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보행 갑판 연결을 통한 공원 접근성 강화를 제안하였으나, 초고층 스카이라인 형성에 따른 경관 훼손, 일조권 침해 및 생태적 고요함 저해 등 개발과 보존의 상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배후 상권인 성수동의 급격한 상업화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서울숲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성수동 일대는 과거 공장지대와 상권이 혼재된 독특한 경관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상업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지대와 임대료가 급등하며 기존 거주민과 영세 소상공인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었다(김상현·이하나, 2016). 이에 관할 지자체인 성동구는 선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과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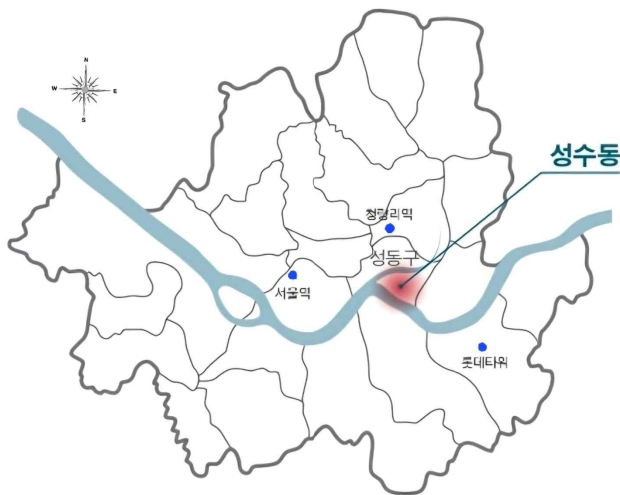
5. 참고문헌

- 김동민. (2019). 조선 후기~ 해방 전후 독점 지역의 서울 근교로서 역할의 변화와 특징.
- 김상현, & 이한나. (2016). 성수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특성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81-105.
- 김숙진. (2020). 아상블라주 관점으로 본 젠트리피케이션과 대응, 그리고 도시정책의 모빌리티: 성수동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3(3), 1-19.
- 김우주, 손용훈. (2015). 서울숲 조성 및 관련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주변지역 도시 형태 변화. 서울도시연구, 16(3), 1-12.
- 김운수. (2006). 청계천, 서울숲 조성에 따른 미기후 및 생태변화 조사연구. 서울연구원
- 김종성, & 김걸. (2021).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성수동 가죽거리 상인의 이주패턴과 지역 변화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5-47.
- 문승운, 김의준, 구진혁. (2017). 도시공원 조성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성동구 서울숲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45(2), 76-88.
- 백두희, & 김신원. (2023). SITES (Sustainable Sites Initiative)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조경설계 원칙에 기반한 도시공원에 관한 연구-서울숲 공원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9(4), 179-190.
- 신상영, 김민희, 목정훈. (2006). 서울숲 조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7(4), 1-17.
- 이상민, & 조정송. (2004).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1(6), 15-27.
- 이제이, 성종상. (2015). 블로그(Blog)에 나타난 도시공원 미시담론 - 서울숲을 대상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43(1), 29-39.
- 전수현, & 박세혁. (2014). 서울숲 이용자들의 관여도, 만족도, 감정적 충성도 간의 인과관계. 서울도시연구, 15(1), 119-130.
- 정해인, 이유미, 김정호. (2017). 상업화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 변화: 서울숲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5(1), 1-10.
- 조문기, & 임석원. (2014). 한국전쟁 이후 서울의 경마장 상황 (狀況) 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3(2), 11-19.
- 조민균, 박찬, 서자유, 최혜영. (2023).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원 이용자 핫스팟 분석 - 서울 성동구 공원을 대상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51(3), 54-69. <https://doi.org/10.9715/kila.2023.51.3.054>
- 조은별. (2013). 산업유산으로서 폐정수장의 보존과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reservation and reuse of disused water treatment plant for industrial heritage.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
- 서울의 공원 <https://parks.seoul.go.kr>
-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성수동

- 20221254 김정훈, 20221272 장재원, 20240312 최지효, 20211351 길현호 -

1. 위치



성수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지리적 중심 좌표는 북위 37° 32' 39", 동경 127° 02' 58" 일대이다. 성수동은 한강의 북쪽, 영동대교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숲, 한강변과 인접해 있다. 강남과 강북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한 지리적 중심지이며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다(김정원, 2024)(그림 1).

그림 1 성수동의 위치

*강홍빈(2015:1)의 그림을 재구성

획 기준인 법정동(2개 동)과 행정 관리 및 주민 편의 기준인 행정동(4개 동)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동으로는 성수동 1가, 성수동 2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동으로는 성수1가 제1동, 성수1가 제2동, 성수2가 제1동, 성수2가 제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여기서 말하는 법정동이란, 재산권 등 각종 법적 문서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인 주소이며, 행정동이란, 국가가 동네의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행정 관리를 목적으로 편의상 묶거나 쪼개놓은 구역이다.

표 1 성수동의 행정동, 법정동

법정동	행정동	비고
성수동 1가	성수1가 제1동	서남부 (서울숲 일대)
	성수1가 제2동	서북부 (독섬역 북측)
성수동 2가	성수2가 제1동	중남부 (성수역, 연무장길)
	성수2가 제3동	동북부 (동일로변)

2. 성수동 산업의 형성과 변화 과정

성수동 공업지역은 1960년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1963년 모나미 공장이 마포에서 이전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서울역사아카이브). 1966년 독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으로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형성된 이후 다양한 제조업종의 업체들이 입지했다(김정원 2024). 성수동과 가까운 염천교 일대에 밀집해 있던 군화 및 구두 영세업체들이 수요 급증으로 인해

1970년대 대형 사업장으로 성장했다. 대형 제화 공장들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까지 성수동에 대거 입지하게 되면서 서울 최대의 제화 산업 집적지로 확장됐다.

한때 성수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성, 장소성이 있는 국내 최대 수제화 산업 집적단지였다. 1970년대에는 신발을 만드는 장인들이 몰려들어 '수제화 동네'로 불렸다(서울경제, 김정욱).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인해 대형 산업시설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하청업체들만 남게 되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구두 관련 공장들이 흩어지고 큰 위기를 맞았다. 성수동은 제화 산업과 피혁 산업의 계보를 이어갔고 성동구청이 제화 산업과 피혁산업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제화 타운 등을 조성하였다(김정원, 2024). 이러한 제조업 쇠퇴로 인해 남겨진 거대한 유헬 공장과 창고들은 이후 성수동에 새로운 상업 자본과 문화가 유입되는 물리적 토대가 되었다.

3.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말로, 도심 낙후지역의 재개발 및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지역가치가 상승하면서 중산층이 다시 도심 주거지로 유입되고 저소득층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이다(서울도시공간포털). 닐 스미스는 이를 '지대격차'(현재 지대와 재개발 시 실현 가능한 지대의 차이) 개념으로 설명했고, 데이비드 레이는 새로운 중간계급의 문화적 취향이 그 동력이라고 봤다. 한국에서는 홍대·경리단길·서촌처럼 골목 상권이 뜨고 임대료가 급등해 원래 상인이 밀려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김걸, 2007, 인경환 외, 2024). 지역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기존 상인·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동지 내몰림')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낳는다는 점에서 흔히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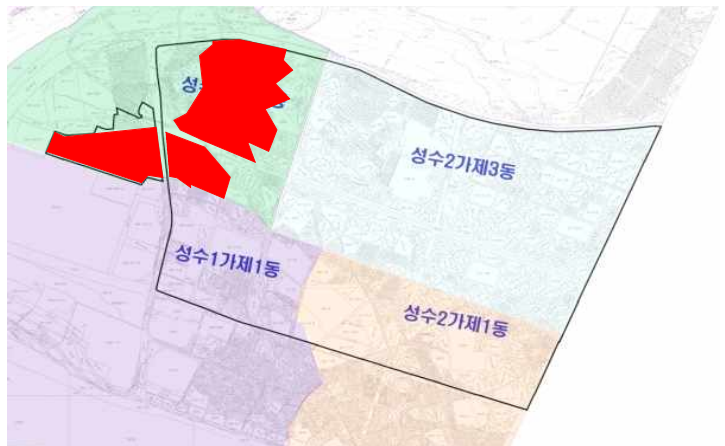


그림 2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범위 - 빨간색: 2015년, 검은색 띠: 2023년(성동구청)

성수동은 원래 수제화 공장과 주택이 뒤섞인 준공업지역이었다. 1995년 공장 이전지에 아파트 개발이 허용되고 2005년 서울숲이 개장하면서 지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2011년 무렵 폐공장·창고를 개조한 대림창고 등이 알려지며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서울경제, 2020). 2014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고, 임대료 인상으로 디자인 협동조합 '보부상회'가 밀려난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그림 2), 건물주-임차인 상생협약(참여 점포에 '상생성동' 표식 부착),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을 시행했고(김상일 외, 2016), 2023년에는 이 구역을 성수동 전역으

로 확대했다(그림 2).



그림 3. A: 성수동 공업지역 한 수제화 공장, B: 대림창고 (서울역사아카이브, 서울경제)

성수동 사례의 특징은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 다수가 실제 주민이 아니라 외부 방문객이라는 점(김상현 외, 2016), 준공업지역 특유의 대형 창고 건축물이 카페·편집숍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심소희 외, 2017, 그림 3). 다만 성동구 자체 조사(2023년 발표, 2020~2022년 데이터)에서 이미 성동구 내 임대료 상승률 1위가 성수동으로 나타났고, 2026년 현재도 한국부동산원 임대료지수(성수·독점 권역)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 최근에는 장기 임차인이 빠진 자리를 단기 팝업 임대('깡세')로 채우는 경향이 늘어, 겉보기 공실률은 낮아도 실제로는 수제화업자 등 원주민 상인이 계속 밀려나는 모습이다. 연구자들은 성수동을 젠트리피케이션과 이를 막으려는 정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혼재된 도시'로 평가한다(조현진, 지상현, 2020).

4. 서비스업과 팝업스토어



그림 4 성수동 팝업스토어 분포(네이버지도)

제조업의 쇠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공장과 창고가 유희화되면서 성수동의 공간적 성격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창고의 외형을 활용한 화보, CF, 드라마 촬영 등이 이뤄졌고, 이후 주변에 카페 및 창작공간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서비스 공간으로 전환되었다(김상현 등, 2016). 오늘날 성수동은 카페·음식점과 같은 외식업, 전시·체험공간, 패션 매장과 팝업스토어 등 서비스업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소비·체험 공간으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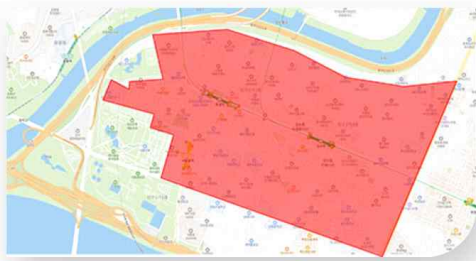
성수동의 변화는 기존 산업공간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상업시설을 건설한 결과라기보다, 공장과 창고의 물리적 특징을 새로운 서비스업에 활용한 과정에 가깝다. 과거 공장과 창고는 제품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카페·전시·패션·팝업스토어를 통해 상품과 브랜드를 소비하고 경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높은 층고, 넓은 내부 공간, 벽돌 외관과 같은 산업공간의 특징은 성수동만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자원이 되었다. 성수동의 팝업스토어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와 외부공간을 활용하며 카페·전시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수동의 서비스업 변화는 단순한 업종 교체가 아니라,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던 공간이 소비와 체험을 목적으로 재해석되는 공간 재구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일정 기간 운영되는 임시 매장이지만, 성수동에서는 단순한 판매시설을 넘어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팝업스토어가 성수동을 활용하는 매력은 장소성, 체험 중심 소비, 상권 집적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성수동의 공장과 창고, 벽돌 건축물, 높은 층고와 넓은 내부 공간은 다른 상업지역과 구별되는 분위기를 만든다. 방문객은 상품뿐 아니라 공장 건축물과 성수동의 골목, 주변 상권까지 함께 경험하게 된다.

둘째, 성수동의 팝업스토어는 상품을 판매하는 임시 매장이라기보다 브랜드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팝업스토어는 벽돌 외관의 기존 건축물과 야외공간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체험하게 하고, 외부에서는 대기와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어 판매와 체험 기능이 결합된 공간임을 보여준다(김채겸 등, 2023).

셋째, 성수동은 성수역과 독점역, 서울숲을 중심으로 카페, 음식점, 패션 매장, 전시공간 등이 밀집해 있어 팝업스토어 방문과 주변 상권 이용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팝업스토어가 성수역과 서울숲 사이의 연무장길 일대에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팝업스토어의 입지가 성수동의 주요 상업·방문 동선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팝업스토어는 성수동의 산업적 장소성과 상업적 접근성을 활용해 상품뿐 아니라 브랜드와 장소를 함께 경험하게 하는 소비 공간이다.



대상지 및 지원내용

• 위치	성수동 전역(서울숲, 성수전락정비지구 제외)
• 지원 방법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착공전	붉은벽돌 건축물 등록신청서 작성
• 사용승인	붉은벽돌 건축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금액 지급시기 (사용승인 후)	전체 공사금액의 1/2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총예산	400,000천원(전액구비) 23년 100,000천원, 24년 100,000천원, 25년 100,000천원, 26년 100,000천원
• 신청시기	2023.1 ~ 2026. 12.

그림 5 성수동 붉은벽돌 지원 사업(성동구청)

팝업스토어는 유희화된 공장과 창고를 소비·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성수동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팝업스토어를 포함한 상업시설의 집적은 임대료 상승과 기존 제조업체 및 소규모 상인의 이탈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팝업스토어가 성수동의 산업적 장소성을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로 소비하는지, 아니면 지역의 역사와 연결하여 활용하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과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 사업은 상업화 과정에서 성수동의 장소성과 경관을 보존하려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붉은벽돌 지원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외관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수동의 산업적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문래동과 비교한 성수동

성수동과 문래동은 서울의 주요 거점을 잇는 2호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6). 두 지역 1950년대부터 서울의 제조업과 공업을 이끌어온 대표적 준공업지역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두 지역 모두 탈산업화와 도시화의 이유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에 들어서 성수동과 문래동은 완전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유사한 입지 요건에서 시작한 두 지역이 어떠한 이유로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림 6 성수동과 문래동의 위치

성수동과 문래동은 강남, 영등포와 같이 서울 주요 도시들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이 있다. 1950년 청계천 재개발로 인해 서울 도심에 있던 소규모 봉제, 섬유, 기계 관련 업체들이 성수동으로 이전하였다(조송연, 2025). 이가 가능했던 이유는 도심지와의 인접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풍부한 수자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결국 성수동은 1950~1970년대까지 서울 경제 성장

을 이끌어 온 대표적 준공업지역이 될 수 있었다. 문래동은 19세기 초 영등포구에서 일어난 근대화의 영향으로 교통, 통신 및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조송연, 2025). 또한 경성방직, 종연방직 등 다양한 방직공장과 염색, 제분, 요업, 자기 등과 같은 공장이 대량 입지하였다. 이후 1960년대 방직공장이 경인로로 이동하며, 1980년대부터는 문래동에 약 2,000여개의 기계금속 기업이 집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도 정부의 서울 공장의 수도권 이전 정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문래동에 있던 기업과 공장은 떠나기 시작했으며, 힘을 잃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홍대 및 대학로에 주로 거주한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실들이 거대 자본이 들어오며 점차 문래동으로 작업실을 이주하기 시작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과거 준공업지역이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두 도시 모두 변화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재 두 도시는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도시재생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성수동 같은 경우 팝업스토어가 매우 활성화된 상태이다. 무신사, 디올, 샤넬과 같은 패션&뷰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과 같은 IP콘텐츠, 수제맥주, 위스키, 글로벌 식품과 같은 F&B(음료,주류,식품) 등이 있다. 2023년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으로, 타 유명한 상권인 명동(31.3%), 강남(9.9%) 등과 비교할 때 성수동의 공실률은 두드러지는 수치이다(황창희, 2024). 또한 2023년 총 매출은 7,355억 원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다 2022년 최고 매출(7818억 원)에 비해 6% 가량 하락하며, 아무리 인기가 많은 상권이라 하더라도 항상 성장세는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성수동이 팝업스토어와 같은 체험형 소비 공간을 창출한다면, 문래동은 소규모 공업 생태계와 로컬 예술 공존 속 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주택재개발이 구체화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민과 철공소의 협력으로 연 ‘경계없는예술축제’를 시작으로, 주말의 독립영화 시청,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영등포구청은 문래동을 떠난 공장지대에 카이스트(KAIST) 서울 캠퍼스를 유치하거나, 인공지능(AI)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스마트 밸리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최아름, 2025). 즉, 문래동은 방직공장 → 기계금속 → 예술 → 첨단산업단지로 변화하는 기로에 서있다.

결론적으로 성수동과 문래동은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이라는 동일한 공간적 출발선에서 시작했으나, 탈산업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공간적 재편 경로를 밟고 있다. 성수동은 강남과의 접근성, 다양한 소비층, 그리고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창식산업과 문화예술 생태계가 집적하였다. 반면에 문래동은 초기 예술 창작생태계를 형성하였으나, 상업시설 유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소비층 및 문화예술 당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성과 정체성 유지에 실패하였다(조송연, 2025).

4. 참고문헌

- 강홍빈(2015), 『성수동』, 서울역사박물관
 김걸. (2007).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과 설명요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1), 37-49.
 김상현, 이한나. (2016). 성수동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특성 연구. 문화콘텐츠연구,(7), 81-105.

김정원. (2024). 공장지대에서 MZ세대의 여행 성지가 된 성수동 연구. *경관과 지리*, 34(4), 1-13.

김채겸, 김주연 and 양지윤. (2023). 성수동 코스메틱 팝업스토어의 체험 마케팅 공간 요소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8(5), 185-196.

심소희 and 구자훈. (2017). 서울시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산업지원 및 도시재생 통합적 관점의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18(1), 1-16.

인경환, 전보강, 전성제 and 최서희. (2024).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 대한 SQLR.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7(4), 344-361.

조송연. (2025). 서울 준공업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연구 : 성수동과 문래동을 중심으로

조현진, 지상현. (2020). 혼재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과 안티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의 공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5(3), 363-377. doi:10.22776/kgs.2020.55.3.363

최아름. (2025). Business Point of View 지자체는 정말 '문래동 공장' 손 났나 : 문래동 작은 공장의 비명. *더스쿠프*,(659), 38-39.

황창희. (2024). BIGDATA '팝업 성지' 성수동, 불황 이긴 비결은. *한경MONEY*,(226), 118-120.

고병기, 「낡은 건물들 사이로 힙한 카페...반세기 시공간 뛰어넘은 '서울의 브루클린'」, 『서울경제』, 2020.01.17, [https://www.sedaily.com/article/12549616\(2026.09.13.\)](https://www.sedaily.com/article/12549616(2026.09.13.))

김상일·허자연,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와 정책적 쟁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6, 1-145.

서울경제. 김정욱.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B28BGMV> 2022-06-19

<https://maps.google.com/?q=37.5442,127.0494> (구글 맵)

search.naver.com <https://map.naver.com/p/search> (네이버 지도)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

국토정보플랫폼. <https://map.ngii.go.kr/>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https://golmok.seoul.go.kr/>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

성동구청 <https://www.sd.go.kr/>

양재천

- 20240323 조현진, 20221256 박광민, 20240350 최정현, 20221257 박서현 -

1. 개요와 역사

양재천이라는 이름은 양재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재동은 조선시대부터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양재역(良才驛)이 설치되어 교통의 거점 역할을 하였다. 또한 양재천은 과거 공수천·학탄(鶴灘) 등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며, 학탄은 현재의 학여울과 관련된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변종득, 2016).

경기도 과천시에서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강남구를 흘러 탄천으로 합류되는 하천이다(조형진 외, 2008). 전체 유로연장은 약 15.6km로, 과천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도시하천이며 최종적으로 한강으로 이어진다(그림1). 양재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지형과 토지 이용이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상류인 과천 지역에서는 산지와 녹지에 인접한 하천 경관이 나타나는 반면, 하류로 갈수록 주거지역과 도로, 상업·업무지역 등 도시화된 공간이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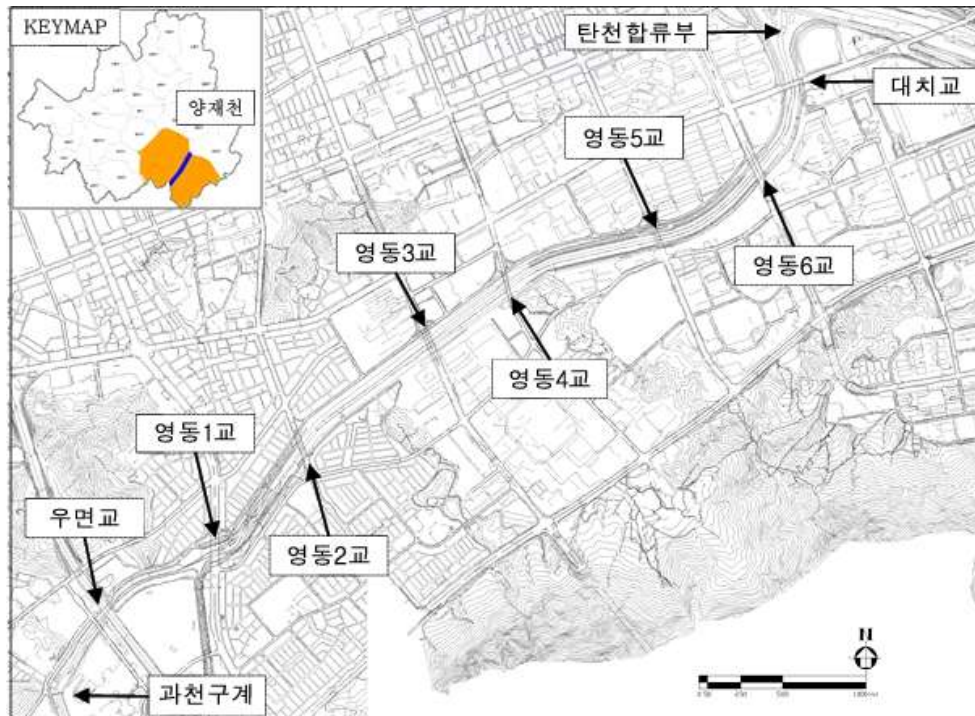


그림 1 양재천 하천 공간 기본지형도

양재천은 과거 자연스러운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정비되었으며, 이후 생태적 복원 사업을 거치며 하안식생과 주변 생태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

났다. 과거의 양재천은 현재와 하천의 유로와 수계가 달랐다. 한강 연안 개발과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하천의 유역과 유로가 변화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탄천으로 유입되는 형태가 되었다. 이후 1970년대 강남지역 개발과 개포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직강화 되었으며, 1995년에 국내 최초로 자연 형 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다(변종득, 2016).

2. 강남 도시개발과 양재천의 인공화

1970년대 서울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주택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도시의 공간적 확장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 개발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도로와 주거지역, 학교, 공공시설 등이 확충되었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주요 학교 등 도시 기능이 강남으로 이전되면서 강남지역의 인구와 도시 기능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1975년에는 강남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되었으며, 이후 아파트 단지와 도로망 등이 확충되면서 강남은 서울의 주요 도시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양재천은 원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한강의 1차 지류였으나 한강 연안개발사업과 주변 일대의 개발로 직강화되면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유역변경 및 유로변경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하천이다. 1970년대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직강화와 콘크리트화되면서 오염이 시작되었고,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오염도가 심해져 물고기가 살수 없는 5급수의 오염하천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복원구간에는 다양한 친자연적 하천복원기법이 적용되었으며, 복원 이후 식생의 변화가 장기간 관찰되었다(조형진 외, 2008). 이러한 도시개발은 양재천 주변의 토지 이용과 하천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거지역과 도로 등이 확대되면서 하천 주변의 자연적인 공간이 감소하였고, 홍수 조절과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천의 흐름을 직선화하고 콘크리트 호안을 설치하는 등 인공적인 하천 정비가 이루어졌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활하수와 각종 오염물질이 양재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악화되었다.

3. 자연형 하천 복원과 생태 환경의 회복

1970년대 강남지역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양재천은 하천의 흐름이 직선화되고 콘크리트 호안 등이 설치되면서 자연적인 하천환경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수변 식생과 생물의 서식환경이 감소하였으며, 도시화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도 악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이 추진되었으며, 1995년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복원사업은 기존의 콘크리트 중심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연형 호안과 수변식생을 조성하고 하천변에 갈대 등 다양한 식물을 도입하여 생물의 서식환경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천숲과 수변공간을 확대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높이며

산책과 휴식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함께 조성하였다.

복원 이후 양재천에서는 하천변 식생과 생물의 서식환경에 변화가 나타났다. 장기간 식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복원구간의 식물 종수와 식생 다양성이 비복원구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갈대와 같은 다년생 식물이 증가하는 등 식생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조형진 외, 2008; 이용호 외, 2011). 또한 피라미와 버들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어류가 확인되는 등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이황구·최준길, 2015).

양재천 복원사업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생태적 기능과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함께 회복한 대표적인 도시하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시민들의 산책과 운동 등 하천 이용이 지속되는 만큼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이용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수질 관리와 식생 관리, 생태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피라미(Zacco platypus)

4. 지역사회적 의미와 지속 가능한 미래

양재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 이후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 운동, 생태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천천투어와 벚꽃축제, 양재 아트살롱 등 다양한 문화·생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양재천은 단순한 물길을 넘어 도시민의 생활공간이자 생태교육과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적 의미가 있다. 도시개발로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도시하천 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한국의 아름다운 길’, 2015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양재천의 생태적 가치와 시민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과 수질 관리, 하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양재천 복원은 식생과 자연형 하천복원기법 등을 활용하여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을 보호·복원·관리·활용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함께 증진하는 접근이다(이지우 외, 2024). 과거 콘크리트로 직강화된 양재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거쳤으며, 자연석과 식생 등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연형 하천 복원은 자연의 기능을 활용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과 시민의 이용환경을 함께 개선한다는 점에서 자연기반해법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우효섭, 2023).

또한 복원 이후 양재천에서는 식생과 식물 종 다양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복원구간의 식물 종 수와 다양도 지수가 비복원 구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 관리방식에 따라 식물상의 변화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조형진 외, 2008; 이용호 외, 2011). 따라서 복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식생 관리와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재천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하천인 만큼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의 이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환경 변화와 침수에 대비하고, 수질과 수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 인접 자치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생태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양재천의 생태적·지역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재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 하천 안전, 시민 이용, 지역사회 참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5. 참고문헌

- 변종득. (2016). 도시하천의 복원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 윤석환. (2015). 서울 양재천 하천숲 조성에 의한 야생조류 서식특성 변화 연구(2003~2015)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우효섭. (2023). 자연/자연기반 특징(NNbF) - 자연기반해법(NbS)과 비교분석 및 국내적용성 평가.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10(2), 31-39.
- 이용호, 강병화, 나채선, 양금열, 민태기, 홍선희. (2011).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 이후 식생관리에 의한 초본 식물상과 천이: 서울시 양재천 사례 연구. *한국잡초학회지*, 31(1), 49-70.
- 이진효, 한현, 이준연, 차영섭, 조석주. (2022). 생물지수와 수질을 이용한 양재천과 여의천의 생태건강성평가. *환경생물*, 40(2), 172-186.
- 이황구, 최준길. (2015). 복원에 따른 양재천 어류 군집의 특성.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9(6), 873-883.
- 조형진, 우효섭, 이진원, 조강현. (2008). 도시 하천 양재천에서 복원후 하안식생의 변화. *한국습지학회지*, 10(3), 111-124.
- 환경부. (2011).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 환경부.
- 서초구청 <https://www.seocho.go.kr>
- 강남구청 <https://www.gangnam.go.kr>
-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
- 문화재청 / 국가유산포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
- 조선일보. (2025, 12월 12일). Yangjaecheon Stream Transformed from Polluted Waterway to Ecological Model. 조선일보.

국립중앙박물관

- 20201944 김희준, 20211367 이준호, 20211373 정해용, 20230788 이종환 -

1. 개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에 자리 잡고 있다(그림1). 이곳은 대지면적 285,990㎡, 건축면적 51,918㎡, 연면적 146,765㎡에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관동과 부속동(9개동), 거울못, 전통염료식물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08년 창경궁 안에 세워진 '이왕가박물관'에서 출발했다. 이후 1915년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건립되었고, 1945년 광복 직후 이를 인수하여 같은 해 12월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한국전쟁 중 소장품을 부산으로 임시 이전했다가 휴전 후 남산 분관으로 이전하여 개관하였고, 1955년에 남산분관에서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 개관하였으며, 1972년 7월경에 국립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림 1 국립중앙박물관 위치(구글지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초기 시대적 배경은 국민과 정부가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족 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인식했으며, 늘어난 유물 분량을 감당하고 기존 체제에서 벗어날 필요성과 정부 청사 이전 계획이 맞물려 그 결과 1986년 8월 21일 구 중앙 청사를 대폭 개수하여 새 청사로 이전 개관하였다. 그러던 중 역사적 청산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일제에 의해 잃어버렸던 역사를 되찾고, 민족정기와 훼손된 문화유산을 보존, 복원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역사적 결단에 따라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바로 옆 사회교육관 건물을 증, 개축하여 1996년 12월 13일 이전 개관하였다. 그리고 21세기 통일 한국과 세계화,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고, 5,000년 문화 민족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용산 가족 공원 내 1만 6,000여 평의 대지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신축하여 개관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은 1946년 46,882점에서 2025년 438,36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소장품의 재질에 따라 22개의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수장고는 한강의 범람,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전기공급 차단, 화재 등과 같은 인공적인 피해에도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수장고의 외부 공간은 수해에 대비하여 이중으로 시공된 벽체와 별도의 공기층이 마련되어 있다. 수장고의 내부 공간은 전기공급 중단 등과 같은 공조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는 조습패널로 시공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여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소화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핵심 역할은 역사·고고학·미술·민속자료의 수집 및 전시,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학술 연구 간행을 수행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 강좌 운영을 통해 전통 문화의 올바른 실체를 알리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며, 한국과 세계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전시·교육하여 '모두를 위한 박물관'으로서 국민의 행복 추구에 기여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 국립중앙박물관의 타임라인(국립중앙박물관)

2. 전시 및 보관 유물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장은 총 7개의 관과 39개의 실로 구성되어 9,884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선사·고대관은 인류가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한 남북국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중·근세관은 고려, 조선, 대한제국 당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여 관람객이 중세, 근세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선 최초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전시되어있다.

서화관은 외규장각 의궤, 서화, 불교회화, 목칠공예의 주제에 따라 전시하여 수준 높은 우리 전통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기증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문화유산을 전시하여 기증자들을 기리고,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헤아리는 공간이다. 사유의 방은 우리나라의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점이 나란히 전시된 공간이다. 조각·공예관은 한국 불교조각, 고려청자, 조선 백자 등 도자공예와 금속 공예문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세계문화관은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아, 인도·동남아시아, 고대 그리스·로마, 이슬람 등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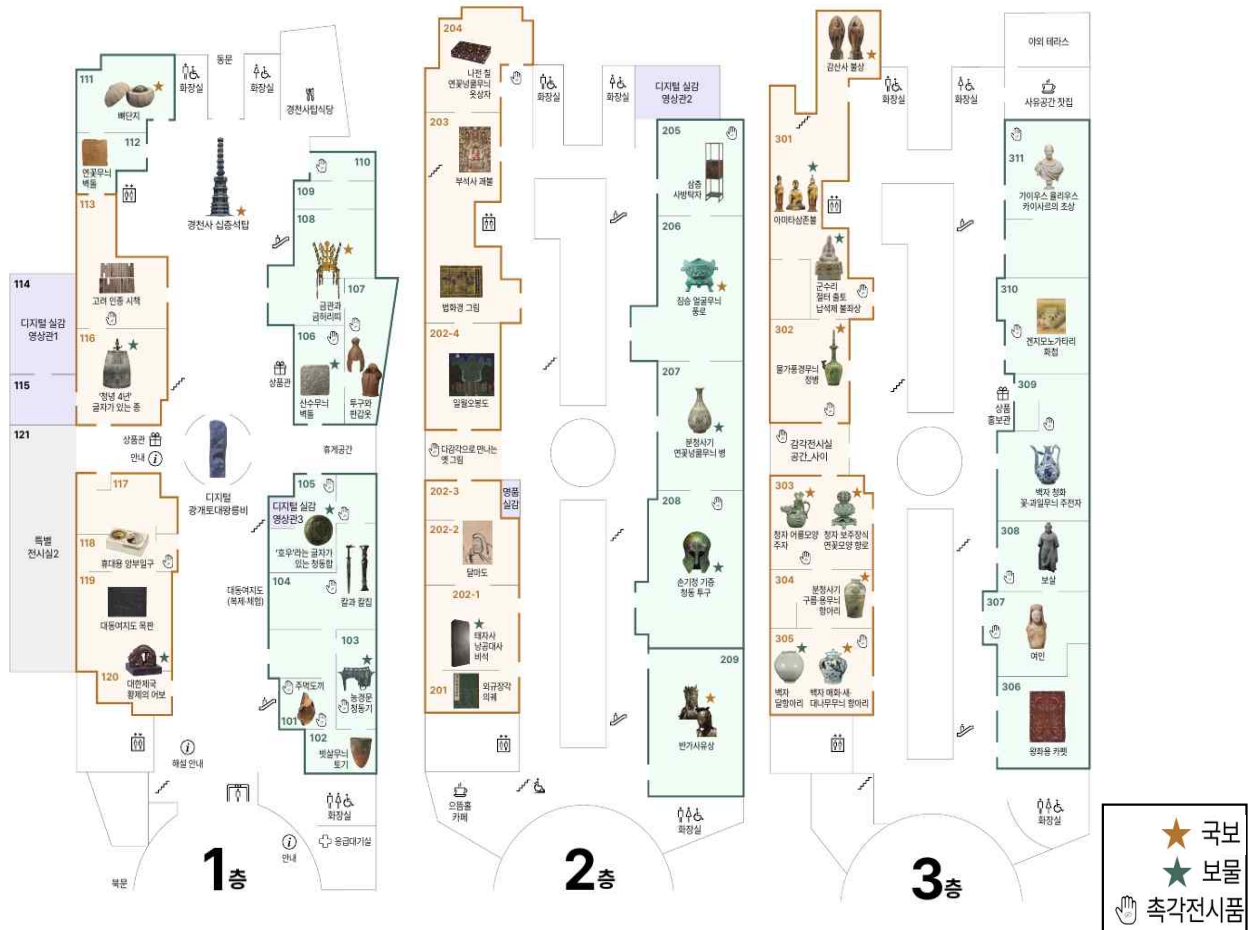


그림 3 국립중앙박물관 층별 전시유물 안내도(국립중앙박물관)

3. 박물관 프로그램

박물관의 프로그램은 현재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6~13세의 어린이, 14~19세의 청소년, 성인, 외국인, 전문인력, 문화 취약 그룹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박물관 전문직 체험 교실(보존 과학자), 북토크, 공·감·각 전시 학습 “공간 오감” 등이 있으며, 이 모든 프로그램은 참가비 없이 무료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박물관 전문직 체험 교실(보존 과학자)은 박물관 전시물의 보존 처리에서 전시까지 과정을 도입, 전개(이론, 체험), 마무리, 사후 활동의 단계로 체험할 수 있으며 전국 시·도 교육 박물관에서 신청받은 초등 5~6학년, 중·고등학교 동아리, 청소년 단체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음식 유산으로 보는 한식 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북토크는 박물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특별 전시와 연계하여 성인과 개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감·각 전시 학습 “공간 오감”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8가지 주제 활동으로 문화

유산을 입체적으로 감상하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초등 5학년 이상 개인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 모두에게 시각 차단 안경을 제공하여 더욱더 교육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 상품 개발자들을 위한 교육과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는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뮤즈(뮤지엄+굿즈)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외국인들에게도 열풍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가 품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한국의 전통과 전시물이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어 차임벨, 방울 소리잔, 석굴암 조명, 단청 기계식 키보드와 같은 현대의 문물로 새롭게 만들어져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림 4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립중앙박물관)

4.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치와 상징성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이 많은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후세대에게 소중한 가치를 선물해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약 40만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역사 박물관으로, 국가의 문화유산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해 미래 세대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국립중앙박물관). 또한 여러 전시,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 국내외의 박물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여러 학술행사와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해외의 역사문화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개하기도 한다(국립중앙박물관). 올해 6월부터 3개월동안 선사 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태국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를 했다. 올해 11월에는 “스위스 쿤스트 히우스 취리히 소장품 특별전”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미술사의 흐름을 전시하며 올해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과 협업을 맺어 특별전 <마리 앙투아네트 스타일>을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물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시되기도 하는데, 영국박물관에는 김홍도의 풍속도첩, 도쿄국립박물관에는 반가사유상 중 하나인 보살 반가상이 전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약 20~30점의 작품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시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유물과 전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해설 서비스, 그리고 입장료 무료라는 이점과 K-POP,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팬데믹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객 수는 6,507,483명으로, 2024년에 비해 무려 70%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전세계 박물관 관광객 수 3위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그림 7-A). 특히 2025년에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며 K-POP의 성지로 자리잡고 있는 중인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더피”와 닮은 모양인 호랑이 뱃지를 포함한 많은 굿즈들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박물관으로 향하고 있다(그림 7-B).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립 소속 박물관의 성장도 두드러지는데, 국립경주박물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영향으로 2025년 약 2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모으기도 했다(국립중앙박물관). 2026년에는 이 수치가 더욱 올라 상반기에만 약 370만명이 방문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약 70% 증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25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순위	박물관명	도시	관람객 수(명)	전년 대비 증감률
1	루브르박물관	파리	9,046,000	+4%
2	바티칸박물관	바티칸	6,933,822	+2%
3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6,507,483	+72%
4	영국박물관	런던	6,440,120	-1%
5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뉴욕	5,984,091	+4%

자료: 아트뉴스페이퍼

데일리안



그림 5 A : 2025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데일리안) B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더피와 까치 호랑이 뱃지(TWIG)

5. 참고문헌

- 김혜민, “국중박, 세계 3위 박물관 됐다… 연 관람객 650만 돌파”, 데일리안, 2026.04.01
 이화연, “국중박 올해 상반기 379만명 방문…여름 성수기 한 시간 관람 연장”, KBS, 2026.07.15
 구글 지도 [google.co.kr/maps/?entry=ttu](https://www.google.co.kr/maps/?entry=ttu)
 국립중앙박물관 [museum.go.kr](https://www.museum.go.kr)
 도쿄국립박물관 www.tnm.j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6249>

용산의 지리적 변천과 전쟁기념박물관

- 20211378 황찬우, 20221273 전승빈, 20221276 한영현, 20230792 장보경 -

1. 용산의 지리적 의의

용산은 한강과 서울 도심 사이에 위치하고, 남산과 이어지는 구릉지의 지형적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한강을 통한 수운과 육산 교통이 연결되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부터 병력과 물자의 이동이 용이했으며,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사적 가치가 높았다. 또한 남산을 비롯한 주변 구릉지는 주변 지역을 조망하고 방어하는 데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용산은 여러 시대에 걸쳐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였으며, 임오군란(1882년) 당시에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였다. 이후 러일전쟁(1904년)을 계기로 일본군 병영이 조성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제20사단 등이 주둔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일본군 시설을 미군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용산기지는 주한미군의 주요 주둔지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용산은 단순히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아니라, 한강·남산·서울 도심이라는 지리적 요소가 결합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군사적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리적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전쟁기념관이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용산의 역사적·지리적 맥락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의 오천 년 전쟁사를 조망하고 있는 기념관이다. 전쟁기념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외침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대외항쟁사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켜온 국난극복사 등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한다. 전쟁의 교훈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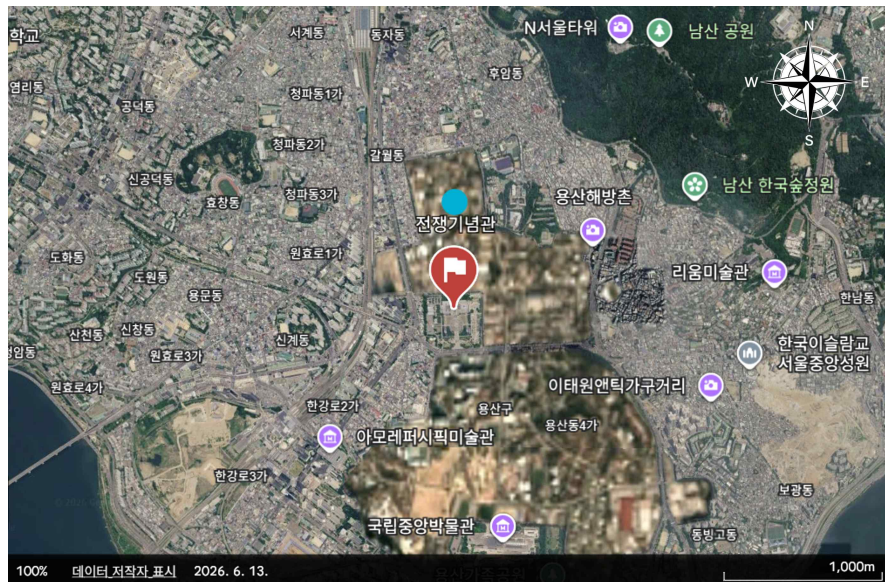


그림 1 용산 전쟁기념관의 위치

현재 전쟁기념관이 위치한 용산은 예로부터 육군본부가 위치할 만큼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었고, 육군본부가 대전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쟁기념관 건립의 토대를 두

었다.국방부에서는 전쟁기념박물관의 건립을 위해 1988년 9월 1일 전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이후 12월 국회에서 「전쟁기념사업회법」이 의결됨에 따라 기념관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1989년 1월 31일에 전쟁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으며, 1990년부터 1994년까지 4년간 공사와 전시물 수집 끝에 1994년 6월 10일에 전쟁기념관을 개관하였다.

3. 전쟁기념관의 공간구조 및 주요 관람 포인트

전쟁기념관은 크게 실내 전시공간과 야외 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내에는 전쟁역사실, 6·25전쟁실, 호국추모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등의 상설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야외에는 전차, 장갑차, 항공기 등 실제 군사 장비와 다양한 기념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어 실내 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쟁기념관의 전시공간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은 전쟁역사실을 시작으로 대형유물전시실, 6·25전쟁실(유엔실), 기증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등을 순서대로 관람하며 우리나라의 전쟁사와 국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쟁기념관에 들어서면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심축을 따라 진입광장과 기념광장을 거쳐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진입동선을 따라 공간의 위계가 형성되며, 기념광장은 기념관으로 들어가기 전의 전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정민, 2023). 전쟁기념관의 전시공간은 각각의 전시 주제를 독립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전이공간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주제별 공간배치는 병치형, 평행형, 방사형으로 구분되며, 백지상(2024)은 용산 전쟁기념관이 이 가운데 전시공간이 전이공간으로 연계되는 ‘평행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전쟁기념관 전시공간 구성현황(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처럼 전쟁기념관은 외부의 진입광장과 기념광장에서 시작하여 내부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 공간 역시 각 주제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전쟁기념관을 관람할 때에는 개별 전시물뿐만 아니라 공간의 배치와 관람 동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념조형물

전쟁기념관의 외부공간에는 전쟁과 국가의 역사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념조형물이 배치되어 있다. 진입공간에는 형제의 상, 한국전쟁조형물, 광개토대왕릉비가 있으며, 기념관으로 들어가기 전 공간에는 유엔참전국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

구분	내용
1층	· 전쟁역사실 · 대형 유물 전시실 · 역사체험 교육실1
2층	· 6·25 전쟁실 1,2 · 호국추모실 · 역사 체험 교육실2 · 6·25 전쟁 아카이브 센터 · 기획전시실
3층	· 6·25 전쟁실 3 · 국군 발전실 · 해외 파병실 · 북한의 군사 도발실 · 기증실
어린이박물관	-

2) 호국추모실

호국추모실은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의 역사를 살펴본 뒤,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며 관람을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전쟁역사실과 대형유물전시실, 6·25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등의 전시를 관람한 뒤 호국추모실로 이어지는 동선을 제시하고, 이곳에서 전시를 통해 얻은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며 과거의 사건을 추모하도록 설계되었다.

3) 6·25전쟁 관련 전시 (6·25전쟁실)

6·25전쟁 관련 전시(6·25전쟁실)는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전쟁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6·25전쟁실은 전쟁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유물과 기록 자료를 전시하고, 유엔군의 활동과 전장체험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김상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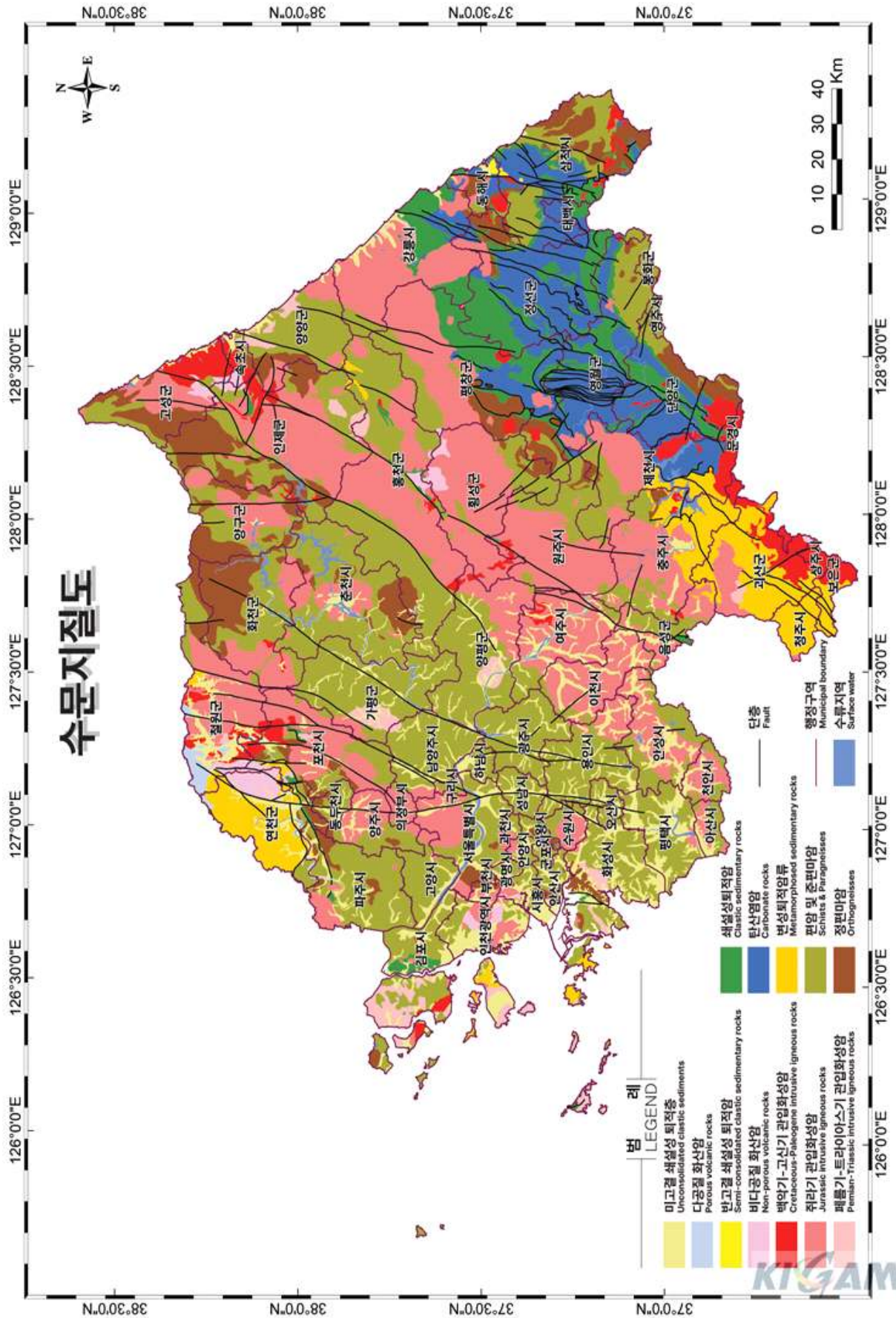
4)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에서는 전차, 장갑차, 항공기, 함정 등 다양한 군사 장비를 실제 크기로 살펴볼 수 있다. 실내 전시가 사진과 기록자료, 유물 등을 통해 전쟁의 역사와 상황을 보여준다면, 야외전시장에서는 실제 군사 장비의 크기와 형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참고문헌

- 황세경. (2020). 전쟁 기억의 경관에 나타난 평화에 대한 고찰 : 용산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12(2), 29-58.
- 김상미. (2012). 「공식기록 창출과 전쟁교육 장치로서의 전쟁기념관 - 전쟁기념관의 전시사진을 중심으로 -」. *문화예술교육연구*, 7(3), 45-70.
- 백지상. (2024). 「영화적 표현특성을 적용한 전쟁기념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 스테판 샤프의 8가지 형식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2023). 「용산전쟁기념관 Memorial 계획 : 기념관 내 광장 재해석을 통하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영상역사관 「전쟁기념관 6·25전쟁 전시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 전쟁기념관10년사 (전쟁기념관, 2004)
- 전쟁기념관 건립사 (전쟁기념사업회, 1997)
- 전쟁기념사업회 <https://www.warmemo.or.kr/>
- 지역 N 문화, <https://ncms.nculture.org/korean-war/story/9148#none>
- 서울기록원, https://archives.seoul.go.kr/exhibition/yongsan?utm_source
- 서울특별시,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168?utm_source

한강유역 지질도



2026 추계 정기 학술 답사

답사인솔 : 최아수

글 : 답사팀

편집 : 고다해, 최아수

인쇄: 청송출판사

발행일 : 2026.9.29.

<http://cku.ac.kr/geography>

파본이나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복불복이죠~.



지리교육과



지속가능환경학과(일반대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